



도서관은 조용하고 엄숙한 공간이 아닌 창작하고, 연결하고, 새로운 문화를 짓는 복합문화 커뮤니티로 변화했습니다. 사람과 책, 문화와 세계를 연결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 책과 예술이 함께 하는 도서관을 만나보세요. 고유한 감성과 좋은 기운으로 일상을 채우며 올해의 봄을 활짝 열어봅니다.



월간<오늘의 도서관>은 누리집([www.nl.go.kr](http://www.nl.go.kr))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데이지(DAISY, 디지털음성도서) 서비스는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 및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vol.

310

2023. 03

# 오늘의 도서관



# 오늘의 도서관

vol.  
**310**  
2023. 03



표지 일러스트  
일러스트레이터 JINZAKA

좋은 풍경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따뜻한 추억이 됩니다. 우연히 마주친 좋은 작품 하나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선사하고 사색의 새로운 방식을 전하며,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합니다. <오늘의 도서관> 3월호에서는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서관의 문화’를 만나봅니다.

월간 <오늘의 도서관> 제33권 제2호 통권 310호  
발행일 2023년 2월 28일 발간등록번호 11-1371029-000167-06  
발행인 국립중앙도서관장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편집위원 김성훈, 손효림, 이은경, 김승정, 배명희  
편집 이정화 todaylibrary@korea.kr  
주소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02-590-6331 팩스 02-590-6329 누리집 www.nl.go.kr  
제호 강병인 디자인·제작 부윤디자인

외부 필자에 의해 제공된 콘텐츠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오늘을 열다



### 04 오늘의 칼럼 도서관 공간문화의 가치

### 06 오늘 나의 도서관은 도서관과 예술이 만났을 때

### 10 일상을 펼치다 나만의 작품을 만나는 즐거움! 봄날의 전시를 좋아하나요?

## 도서관을 만나다



### 14 이달의 전시 다시, 시대의 스승을 만나는 시간 「이어령의 序: 故이어령 1주기 추모 특별전」

### 18 문헌의 가치 조선시대 일본어사전, 《왜어유해(倭語類解)》

### 22 꿈을 이루는 도서관 인생을 바꾸는 평생학습을 만나다 ‘경상북도교육청 청도도서관’

### 26 도서관 여행자 디지털 시대 새로운 도서관의 탄생 ‘샤르자 지혜의 집’

### 30 도서관 트렌드 또 다른 세상속의 새로운 도서관 ‘메타버스 도서관’

## 공감을 펼치다



### 34 북데이터 신학기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 초등학생 및 청소년 대출현황 분석결과

### 36 오늘의 만남 경이롭고 아름다운 과학의 세계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 40 K-인문학 ‘약한영웅’, 우정과 연대라는 영웅 서사의 한 조각

### 44 고전 드라마 스토리보다 재미있는 ‘설정의 독특함’ 프란츠 카프카 《변신》

### 48 오감독서 딸기처럼 작고 귀여운 행복에 대하여 다나베 세이코 《딸기를 으깨며》

## 함께 나누다



### 52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 56 국내외 도서관 소식

### 58 내 마음의 문장들 2023년 두 번째 필사 정호승 <봄길>

### 59 오늘의 사진관 따스한 봄날, 나만의 도서관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도서관 3월호를 SNS에서 만나보세요.

- 블로그 [blog.naver.com/dibrary1004](http://blog.naver.com/dibrary1004)
-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nationallibraryofkorea](http://www.instagram.com/nationallibraryofkorea)
- 페이스북 [www.facebook.com/nationallibrary.of.korea](http://www.facebook.com/nationallibrary.of.korea)
- 유튜브 [www.youtube.com/nationallibraryofkorea](http://www.youtube.com/nationallibraryofkorea)



<오늘의 도서관>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러스트레이션 및 사진은 제외.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제도란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용허락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게 공개하고 활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www.kogil.or.kr](http://www.kogil.or.kr)



# 도서관 공간문화의 가치

글 고재민 수원과학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교수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해보자. 유아부터 어린이, 청소년, 성인, 그리고 실버세대까지 생애주기별 모든 연령층이 함께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과연 도서관 이외에 또 있을까? 필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서관 이외에 그럴만한 공간은 생각나지 않는다. 즉, 시민 입장에서 바라볼 때 위상학적으로도 가장 높고 중요한 공간 중에 하나가 도서관이다. 과거 도서관이 공부하는 곳으로 인식되었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 시대의 우리 도서관은 삶을 소통하는 중심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더욱더 시민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2000년 이후에 건립된 공공도서관은 지금 우리나라가 보유한 전체 공공도서관의 약 75%를 이룬다. 엄청난 양적 성장을 해온 것이다. 어느 과정이나 과도기를 거쳐 성장기를 지나는 것처럼 그간 우리의 도서관도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도서관이라는 신축건물이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마냥 기뻐했던 시기를 지나, 더욱 위상에 걸맞는 규모로 건립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보다 효율적이고 시민친화적인 맞춤형 공간으로 건립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들이 이어졌다. 이제는 색채부터 사인시스템, 가구디자인, 조명계획까지 어느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한 현장의 움직임이 눈물겹다.

과연 지금 우리의 도서관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그 공간변화의 모습과 방향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선사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한다.



## 융합공간[비영역화·비경계화]

벽, 칸막이, 문을 최소화하면서 공간의 융합이 이뤄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 한 개 층 전체를 통합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융합된 공간의 공간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1층 로비의 경우 중앙 홀을 중심으로 분리된 좌·우의 공간은 이용 접근성을 고려하여 융합공간으로 개편되면서 소통공간의 플랫폼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로비를 활용한 정보소통공간(Information Commons)으로 운영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용자를 넘어 지역 주민을 위한 소통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공용공간의 면적을 활용하여 비 활용되던 공용공간을 자료열람공간, 문화교육공간 등 다양한 기능별 공간에 통합시키면서 공간활용도를 높임과 동시에 가용면적을 확보하고 이를 공중에 제공하면서 주민친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 개방공간

도서관의 모든 공간이 통합되고 하나의 공간으로 개방되고 있다. 과거 일방적 정보전달이 아닌 상호 간 정보교류를 통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 도서관은 본래 정보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통의 행위가 발생하는 공간인데 그간 조용한 도서관으로 변모하게 되면서 도서관 내에서 책장 넘기는 소리도 매너로 생각하게 되는 문화가 자리잡게 되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 공간의 기능적 융합과 함께 물리적으로 개방된 공간을 구성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공간의 시각적 개방감을 조성하여 이용자와 이용자, 이용자와 정보 이용자와 공간, 이용자와 운영자 간 확장적 만남을 유도하도록 개편되었다. 개방공간으로의 변화에 따라 학습공간이 열람공간으로 편속되고, 이를 통해 도서관 본연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이용자의 행태에 따라 저층부는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

한 공간으로 개편된 '소음영역'으로, 중층부는 종합자료열람 및 전자정보, 연속간행물 등의 기능을 통합하고 이용자와 사서 간 정보의 공유와 자유로운 열람의 형태가 가능한 '중소음영역'으로, 고층부는 문화교육 또는 학습공간의 수요를 반영하여 개방된 형태의 공간으로 구성하거나 집중적 자료의 열람이 가능한 '무소음공간'으로 개편되고 있다.

## 개념공간

도서관의 소요시설로서 다분화되어 있던 영역별 실의 배치가 기능적으로 연계성이 높은 공간끼리 융합되면서 도서관 순기능에 부합하는 개념이 재정립되고 있다. 공간이 기능적으로 명확한 개념을 갖게 되면서 혼재 배치되었던 기능군의 시설들이 유사기능 공간으로 융합되고 더 나아가 총별 수평 개념의 배치로 변화되면서 관리 효율성의 증대 및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또한 전자정보매체의 발달에 따라 PC 중심의 전자정보서비스 형태가 무선환경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물리적 공간을 활용한 서비스의 제공이 아닌 도서관 전체 무선통신환경으로 개편되어 도서관 어디서든 무선기기를 활용해 전자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LIP(Library Information Platform)으로 변화되고 있다.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도서관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소통과 진정한 라이프러리(Library = Life\_rary)가 담길 미래 도서관의 모습이 더욱 기대되는 요즘이다. ②

## 도서관과 예술이 만났을 때

글 임지영 예술교육자 / 문화예술 플랫폼 ㈜즐거운 예감 대표



지금의 나를 만든 건 도서관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도서관에서 보낸 시간이다. 도서관이라 해서 책만 읽는 곳은 아니기에 그곳에서 수많은 시간과 경험을 지나왔다. 처음 집 앞에 서울 서초구립반포도서관이 생겼을 때 정말 기뻐다. 큰 도서관은 아니었지만 알차고 다정했다. 오고 가다 아무 때고 들러 책도 읽고 가끔 활자가 들어오지 않는 날은 '책멍'도 했다. 소식지를 유심히 살피다가 좋은 강의도 들으러 갔다. 그러다가 몇 년 전 나의 인식을 바꿔준 그 전시를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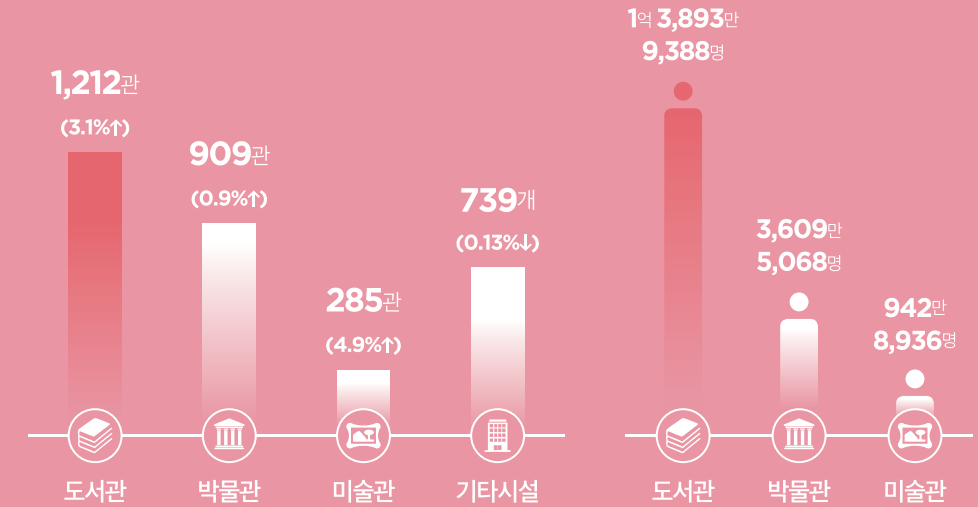
### 국내 주요 문화시설 현황 분석

(2022. 1. 1. 기준)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시설 증감 현황

#### 문화시설 이용자 수

전년도 대비 증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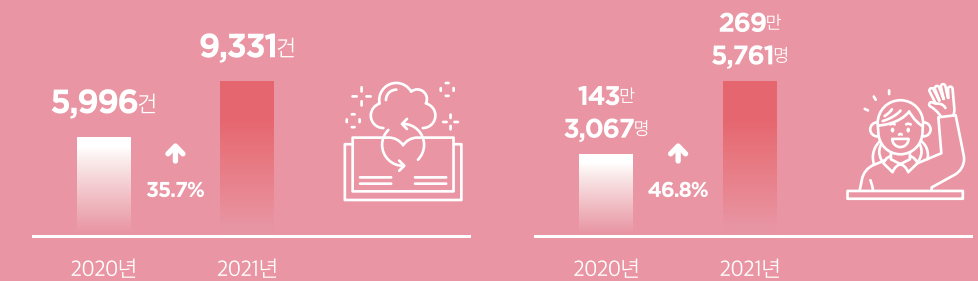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코로나19 완화로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증가

(2021. 12. 31. 기준)

#### 공공도서관 오프라인 1회성 문화 프로그램 수

#### 공공도서관 오프라인 1회성 문화 프로그램 방문자 수



자료출처: 2022년('21년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 도서관 전시를 처음 만나던 날

어느 날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로비에 아트월이 세워지고 크고 작은 작품들이 걸려있었다. 전시를 감상할 때 관련 정보를 먼저 확인하지 않는다. 예술로 느끼는 직관과 감각을 좋아해 언제나 겁 없이 반가운 마음으로 작품들과 마주한다.

필자는 당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때로 예술을 대하는 사람들의 엄숙과 근엄, 진지한 분위기가 힘들었다. 예술작품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사람들의 선입견이 강했기에, 예술이 일상 속으로 파고들기 어려웠다. 예술과 대중은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당산'이었다.

그런데 서초구립반포도서관에 전시된 작품들은 좀 달랐다. 강렬한 색감과 단순한 형태였는데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진 달까. 포스터를 보니 전국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미술 공모전 '프리즘 프라이즈'의 수상 작품 전시회였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눈이 보여야 그릴 수 있다는 편견이 깨지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이들 그림 속엔 이야기가 들어 있었다. 한 명 한 명 분명하고 열렬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다. 커다란 캔버스에 몸을 이용하여 그린 작품들이었는데, '빛나는 밤하늘로 날아가고 싶은 아이', '한여름의 뜨거운 싱그러움 앞으로 나아가는 아이' 등 아이들은 온몸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그림을 통해 꿈과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사실 눈이 잘 보여도 꿈과 자신을 찾아가기란 쉽지 않다. 어쩌면 너무 많은 것이 보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너무 많은 선택지와 색깔들이 준비한 상황 속에서 망설임과 주저함이 반복되는 것이다.

도서관에서 만난 이 전시가 너무 좋아서 여러 매체에 소개 칼럼을 쓰고, 많은 이들과 함께 보러도 갔다. 본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고, 장애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그 전시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어쩌면 도서관이었기에 더욱 의미 있는 전시였고, 하나의 편견을 깨고 세상을 사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로 나는 도서관의 열렬한 지지자가 됐다. 도서관을 기반으로 모인 분들과 '서초문화네트워크'를 만들어 예술 강좌를 기획하고 다양한 예술 축제도 주관했다. 도서관은 더 이상 조용히 책만 읽고 그냥 가는 고독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복합문화 공간이자 사람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됐다.

우리는 '예술'을 여전히 어렵고 멀게 느낀다. 미술관에서 어떻게 작품을 해야 하는지, 작품 앞에는 또 얼마나 서 있어야 하는지, 어색함과 불편함을 느끼기도 한다. 예술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느 미술관을 가야 할까요?" 자주 질문 받는다. 그러면 나는 늘 이렇게 대답한다. "가까운 전시를 보러가세요!"

예술은 우리 삶 가까이 있고 좀 만만해야 한다. 도서관처럼 늘 오가다 들를 수 있는 곳에 존재해야 한다. 요즘은 꽤 많은 도서관에서 다양한 전시들이 열리고 있다. 그림책 원화 전시가 주로 열리지만, 지역 작가와의 협업 전시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아마추어 예술가들에게 기획의 장을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서관이라는 플랫폼은 품이 넓어서 문화-예술 전반의 모든 활동과 사람들을 담을 수 있다.

나도 벌써 7년째 도서관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예술 봉사를 하고 있다. 전국 보육원에 그림을 기증하는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새 50군데가 넘는 보육원들에 1,000점을 훌쩍 넘게 기증했다. 함께 향유하는 시간과 마음이 좋아서 계속 진행해 왔다. 도서관에서 만나 좋은 일을 함께하며 지금도 서로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다.

### 아이들 그림 속엔

이야기가 들어 있었다.

한 명 한 명 분명하고 열렬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다.

### 도서관은 더 이상

조용히 책만 읽고 그냥 가는

고독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복합문화 공간이자

사람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됐다.



### 예술은 집 앞 도서관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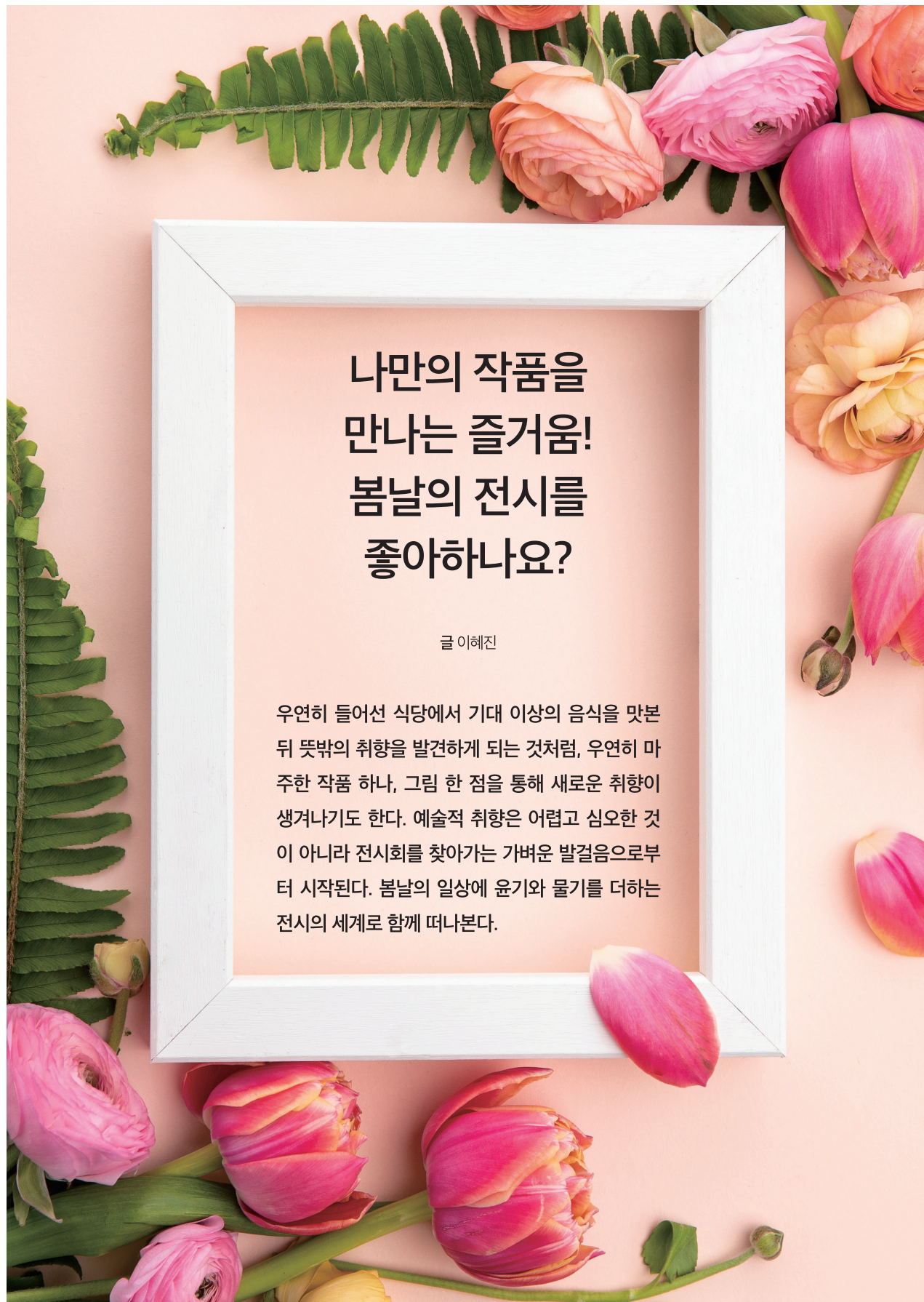
나는 도서관이 키운 사람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다. 지금 하고 있는 예술교육 일도 도서관에서 오랫동안 해 온 기획업무가 바탕이 됐다. 도서관의 플랫폼 역할은 점점 더 진화되고 확장될 것이다.

미래 사회의 키워드로 '혼자, 장수, 무인'이 뽑혔다고 한다. 해당 내용을 접하고 조금 답답함을 느꼈다. 혼자 쓸쓸하게 늙어가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증가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인공지능을 친구 삼아 생활할 순 없다. 우리에게만 만날 사람과 모일 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콘텐츠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도

서관이다. 도서관에서 만나는 가슴 따뜻한 전시, 예술을 일상으로 향유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은 그리 쓸쓸하지 않을 것이다. 그림 한 점 앞에 두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다 보면 평소와는 다른 밀도 있는 대화가 가능해진다. 나의 취향을 알아가고 애호하는 대상이 많아지는 삶, 나는 그것이 진짜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예술 향유, 먼 데서 찾을 것 없다. 우리집 앞 도서관에 다 있다. ②

1) jtbc <차이나는 클라스> 252회 '나의 가치를 높이는 트렌드 읽기' 송영길 교수 강연 중





## STEP 1

다가서기:

큐레이터의 시선으로

공간을 바라보다

전시회는 또 하나의 커다란 작품이다. 기획의도와 목적, 주제에 알맞게 공간이 구성되며 작품의 전시 방식이 결정된다. 전시를 기획·운영하는 전문 인력을 '큐레이터'라 부른다. 큐레이터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에게 보여줄지 전시를 계획한다. 주제별로 작품을 분류한 뒤 작품의 배치와 전시 방식, 공간 구성 등을 고민한다. 조명의 밝기, 이동 동선의 순서, 공간을 가로지르는 음향 효과 하나하나까지 전시의 주제 아래 치밀하게 기획된 것이다.

전시장에 들어섰을 때, 큐레이터의 시선으로 공간 전체를 천천히 바라보는 일은 전시의 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시의 주제는 무엇인지, 공간 구성은 어떻게 짜여있는지, 작품 배치의 특성은 무엇인지. 전시회를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살펴보면 공간의 분위기를 음미하다 보면 낮은 감각이 슬며시 허물어지고, 큐레이터의 정성과 세심함도 헤아려보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작품을 한 걸음 더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싶은 즐거운 관심이 솟아난다.

## STEP 2

대화하기:

작품에 말을 걸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진다. 작품 감상 역시 누군가를 좋아할 때의 마음으로 다가서면 작품과 나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있다. 전체적인 느낌을 파악하고 질문을 던져보며 작품과 대화하는 것이다.

작품 속 주인공은 누구일까? 주인공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왜 이 색깔을 강조했을까? 이 재료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나는 왜 이 작품에 눈길이 갈까?

분석적인 사고와 깊이 있는 해석으로 작품을 파고드는 것도 좋지만, 사소하고 단순한 질문을 던지는 습관도 중요하다. 질문은 작품에 대한 노크이자 가벼운 인사와도 같다. 감상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고 작품과 친밀감이 형성된다. 예술에는 정답이 없듯 질문에도 정답은 없다. 나만의 질문을 던진 뒤에는 작품이 들려주는 답변을 기다려보자. 답이 없으면 없는 대로, 짐작해볼 수 있다면 나만의 상상으로, 때로 느낌만으로, 작품과 이야기를 나누며 집중하다 보면 사색의 즐거움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한다.

## STEP 3

알아가기:

알아갈수록 새롭게

보이는 것들

최근 많은 전시관은 도슨트(Docen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슨트란 관람객에게 작품의 개괄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안내인을 의미한다. 도슨트는 관람객의 이해에 초점을 맞춰 작가와 작품, 작품이 탄생한 시대적 배경과 관련 개념 등을 전달한다. 작품에 대한 배경지식이 확장되는 만큼 작품 감상이 한층 수월해지며 그야말로 아는 만큼 보이는 경험, 문화생활이 지식의 발견으로 이어지는 소소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영화를



한 번 볼 때와 두 번째 볼 때가 다른 것처럼, 같은 전시라도 볼 때마다 새로운 감상이 펼쳐진다. 혼자 감상하는 전시도 좋지만, 누구와 가는지에 따라서도 전시 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 친구와 함께 방문해 마음에 드는 작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작품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사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쌓인 후에는 작품을 더 자세히 감상해보자. 한 작품만을 집중적으로 감상하는 단독감상, 두 가지 이상의 작품을 비교하며 작품의 주제와 특징 등을 살펴보는 비교감상, 구도·색채·명암·형태 등 표현 기법 중심의 분석감상, 작품을 마주했을 때의 직관적인 느낌에 집중하는 종합감상 등의 방법을 통해 작품을 더욱 깊이 있게 들여다보자.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을 넘어 보는 만큼 알게 될 때, 작품은 비로소 우리 안에 오롯이 자리하게 될 것이다.

감상은 거울 감 ‘鑑’과 상줄 상 ‘賞’으로 이루어진 단어다. 거울처럼 살펴보고 칭찬한다는 의미이다. 관람을 마친 뒤 작품을 거울처럼 들여다보며 느낀 생각을 문장으로 기록해보자. 이윽고 우리 안에 새겨진 작품 하나가 일상에서 느낄 수 없던 다채로운 감성을 전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깊이를 더할 것이다. 취향의 발견, 문화적 사유의 즐거움이 가득한 전시를 통해 올해의 봄을 활기차게 맞이해보자. 📖

# 도서관을 만나다



## 3월의 도서관 전시

### 부산도서관



#### 이담·김근희 《설악산 일기》원화전

📅 2월 1일(수)~3월 12일(토)  
오전 9시~오후 6시  
(월요일, 국가공휴일 휴관)

📍 2층 전시실(051-310-5470)

🌐 library.busan.go.kr

### 대전 한밭도서관



#### 꿈꾸는 너를 위한 선물展

📅 3월 4일(토)~3월 29일(수)  
오전 10시~오후 5시  
(월요일, 국가공휴일 휴관)

📍 1층 전시실(042-270-7486)

🌐 daejeon.go.kr/hanbatlibrary

### 경주 칠평도서관



#### 그림책 원화 전시회: 불품없는 상

📅 2월 1일(수)~3월 24일(금)  
오전 9시~오후 6시  
(월요일, 국가공휴일 휴관)

📍 1층 로비(054-779-8962)

🌐 library.gyeongju.go.kr

#### 14 이달의 전시

다시, 시대의 스승을 만나는 시간  
『이어령의 序: 故이어령 1주기 추모 특별전』

#### 18 문헌의 가치

조선시대 일본어사전,  
《왜어유해(倭語類解)》

#### 26 도서관 여행자

디지털 시대  
새로운 도서관의 탄생  
‘샤르자 지혜의 집’

#### 22 꿈을 이루는 도서관

인생을 바꾸는  
평생학습을 만나다  
‘경상북도교육청 청도도서관’

#### 30 도서관 트렌드

또 다른 세상속의  
새로운 도서관  
‘메타버스 도서관’

# 다시, 시대의 스승을 만나는 시간

글 김승희 사진 국립중앙도서관, 김용호

# 序



## 「이어령의 序: 故이어령 1주기 추모 특별전」

국립중앙도서관은 故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1주기를 맞아 추모 특별 전시를 개최했다. 이 전 장관의 저서와 말씀, 육필원고, 애장품(책상·가방·키마우스 등),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시대의 지성으로서 어지러운 세상에 따뜻한 지혜의 메시지를 전하던 이어령 전 장관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시간. 국립중앙도서관의 특별한 전시와 함께 지성의 봄을 열어보자.

### 우리 곁에 남아 있는 지성의 온기

1933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난 이어령 전 장관은 국문학자이자 소설가, 문학평론가, 언론인, 교육자, 행정가로 활약했다. 시대를 관통하는 혜안으로 대한민국 지성의 시대를 이끌었다. 문화·예술, 인문·사회, 종교, 과학 등 다양한 주제를 넘나들며 울림 있는 지혜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시대의 스승이 되어주었다. 이러한 그의 삶과 정신을 계승하고자 국립중앙도서관은 2022년 6월 영인문학과 업무협약을 체결, 관련 자료들을 디지털화하고 디지털컬렉션을 구축했다. “내 말과 생각이 남아 있다면 더 오래 사는 셈”<sup>1)</sup>이라던 이 전 장관의 말처럼, 그 지성의 온기가 다시 우리 곁을 찾아왔다. 이번 전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의 삶의 흔적을 마주함과 동시에 지혜의 가치를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1) 김지수, 이어령,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열림원, 2021



01 故이어령 1주기 추모 특별전 ‘이어령의 서(序)’ 포토존  
02 이어령 전 장관이 마지막 원고를 집필했던 책상과 의자, 유품 등이 전시된 ‘창조의 서재’ 공간





### 애장품과 저서에 담긴 지성의 미학

전시회는 프롤로그부터 에필로그까지, 크게 6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프롤로그 ‘침묵의 복도’에서는 16m의 어둡고 좁은 복도를 통과하게 된다.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차분하고 고요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전시 공간으로 가까워질수록 외부와의 소음으로부터 단절되며 집중과 몰입을 끌어올린다.

이어 ‘창조의 서재’에서는 이 전 장관이 평소 사용했던 애장품이 전시되어 있다. 책상, 만년필, 가방, 안경, 지갑, 사전, USB 등 그의 손때 묻은 물건들을 만나볼 수 있다. 소탈하면서도 단정한 물건들에는 이 전 장관의 취향과 시대적 감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성과 창조의 배경이 되어준 유품을 통해 이 전 장관과 간접적으로 만나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다음으로는 ‘이어령의 말과 힘, 글의 힘, 책의 힘’ 섹션이 펼쳐진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저술해 온 이 전 장관의 폭넓은 지식과 업적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단독저서, 어린이저서, 대표저서를 구분해 185권의 도서를 전시하고 있다. 《저항의 문학》(1959), 《흙속에 저 바람 속에》(1964), 《축소지향의 일본인》(1982) 등 초판본의 표지는 빛이 바래있지만, 세월을 뛰어넘은 지성의 힘과 감동은 더욱 또렷하게 다가온다.

이어 ‘창조의 서재’에서는 이 전 장관이 평소 사용했던 애장품이 전시되어 있다. 책상, 만년필, 가방, 안경, 지갑, 사전, USB 등 그의 손때 묻은 물건들을 만나볼 수 있다.

### 영상과 미디어아트를 통한 사유의 확장

다음 공간은 이 전 장관의 생전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는 디지털 공간, ‘이어령과 조우하다’이다. 영상은 사적영상과 공적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적영상에서는 그의 일상적인 모습이 펼쳐진다. 손주를 안고 있는 모습, 졸업식 사진 등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희소성 높은 영상들이다. 한 개인으로서 인간적인 매력이 뭉클할 정도로 반갑게 느껴진다. 공적영상에서는 장관, 위원, 교수 등 시대의 스승으로서 활약하던 장면들이 담겨 있다. 고요한 공간을 울리는 묵직하고 명료한 이야기는 다시금 존경과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이어 ‘무한의 길’에서는 이어령의 삶의 주요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침묵의 복도에서 무한의 길로, 전시의 시작과 끝을 잇는 사유의 공간이다. 이어령식 사고의 확장성을 삶의 이력으로 제시하며 1주기 전시가 <이어령의 序>가 된 이유를 설명한다.



06



03



04



05

마지막으로 마련된 에필로그 ‘굿나잇 이어령’에서는 전시장에 배치된 태블릿 PC에 이어령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송해본다. 전송된 텍스트는 미디어월에 전사되어 그의 얼굴을 형상화한다. 관람객의 참여로 구현되는 텍스트 아트를 통해 전시에 대한 감동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어령의 序: 故이어령 1주기 추모 특별전』은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1층 전시실에서 오는 4월 23일(일)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이어령 전 장관의 창조적 지성과 삶의 정신을 되새겨 보는 귀중한 시간을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

03 이 전 장관이 평소 사용했던 다양한 물건들

04 이 전 장관의 넓고 깊은 지식의 세계를 마주할 수 있다

05 초판본을 비롯해 185권의 저서가 전시되어 있다

06 이 전 장관의 일상과 활약 등 생전 모습들을 영상 콘텐츠로 만나본다



## 조선시대 일본어사전, 《왜어유해(倭語類解)》

글 안혜경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학예연구사 사진 국립중앙도서관



01

7년 전쯤의 일이다. 필자가 일하는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사무실로 연구서 한 권이 배송되었다. 국문학과 교수인 저자가 기증한 책이었는데, 일본어판으로 되어 있어 필자가 서문을 읽어본 기억이 있다. 서문의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 《왜어유해(倭語類解)》라는 조선시대 고서가 일본에만 유일하게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소장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기존에 알려진 책보다 먼저 인쇄되어 마모와 훼손이 적은 선본(善本)이라는 것이다. 덧붙여 도서관본은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한 일반고서인데, 왜 이 자료가 귀중본으로 지정되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까지 쓰여 있었다. 이를 계기로 당시 귀중본 지정을 담당하고 있던 필자는 이 자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좀 더 자세히 조사해보기로 했다.

### 조선시대에도 외국어 조기교육이 있었다?

‘왜어(倭語)’는 일본어를 이르는 말로, 《왜어유해》란 ‘일본어를 유별(類別)로 풀이한 책’임을 알 수 있다. 상하권 2책의 목판본으로 구성된 본서는 조선시대 일본어 학습교재로 활용된 어휘사전이다.

이 책을 알아보기에 앞서 조선시대 외국어 교육에 대해 먼저 짚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외국어 교육은 통역과 번역을 맡아보던 관청이자 교육기관인 사역원(司譯院)에서 외교 실무 관리(官吏)인 역관(譯官)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여기서 외국어란 중국어에 해당하는 한어와 일본어, 몽골어, 여진어<sup>1)</sup>를 말한다. 따라서 이들은 사역원에서 한학(漢學), 왜학(倭學), 몽학(蒙學), 여진학(女眞學)<sup>2)</sup>을 배우고 익히게 된다. 역관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시험의 잡과(雜科) 중 하나인 역과(譯科)에 급제해야 했다. 영조 6년(1730년) 현계근(玄啓根)이란 인물이 다섯 살에 일찌감치 사역원 왜학 생도로 입학해 일본어 교육을 받았다는 기록이 현재까지 남아 있어 당시에도 외국어 조기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일본어의 경우, 조선 초기에는 과거시험에서 《이로파(伊路波)》라는 일본 교재를 사용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일본어 강독, 회화 등 조금 더 실용적인 교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첩해신어(捷解新語)》라는 책을 간행하여 수험서로 활용했다. ‘새 말을 빨리 깨우친다’라는 뜻의 제목은 임란 이후 실제 일본인들에게 배운 새로운 일본어 교재라는 의미를 포함하며, 이후에도 《첩해신어》는 여러 차례 수정 및 편찬되었다. 하지만 일본 고유의 글자인 히라가나(平假名)로 쓰인 이 책만으로 일본어를 익히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기에, 후에 한자와 한글로 일본어 발음과 뜻을 풀이를 한 어휘집을 편찬, 단어학습을 돕게 됐다. 이것이 바로 위에 언급한 《왜어유해》라는 일본어 어휘사전인 것이다.

- 1) 후에 만주어로 바뀜
- 2) 1669년 이후 청학(淸學)

02



- 01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왜어유해》
- 02 임진왜란 이후 일본어 수험서로 활용된 《첩해신어》



실제로 이 책은  
당시 대마도 등에 거주한  
일본인들이 한국어 학습을  
위해 활용했고,  
서양인이나 중국인이  
일본어 학습을 위해서도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03

#### 일본어 어휘사전 《왜어유해》의 특징과 사용법

《왜어유해》는 숙종 때 왜학 전공의 역관인 홍순명(洪舜明, 1677~1705)이 17세기에 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홍순명의 책을 저본으로 하여 1781년에 책의 권말에 보이는 수정관(讐整官) 한정수(韓廷修, 1741~?), 서사관(書寫官) 민정운(閔鼎運) 등의 역관이 편찬한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어 편저자와 간행 시기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분명한 것은 조선시대 한국인이 만든 일본어 어휘사전이라는 점이다. 당시의 한자음과 국어 발음 현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한글과 일본어를 대조할 수 있어 국어사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실제로 이 책은 당시 대마도 등에 거주한 일본인들이 한국어 학습을 위해 활용했고, 서양인이나 중국인이 일본어 학습을 위해서도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책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날의 사전처럼 철자 순으로 배열한 것이 아니라 시후(時候), 인륜, 신체, 음식, 질병, 관직, 구결 등 59개 항목별로 당시 일본어 어휘 총 3,350여 자를 수록하고 있다. 한자로 제시된 각 어휘 아래 한자의 훈음(訓音)을 한글로 표기한 후 옆에는 일본어의 한자 독음을, 하단에는 그에 해당하는 순수 일본어 발음을 한글로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好’자의 경우 한자어 아래에 ‘조흥호’라고 훈음을 표기하고, 옆에 ‘고우’라는 일본어 한자 독음을, 하단에는 ‘요시’ 또는 ‘고노무’라는 두 가지 일본어 발음을 보여주고 있다. ‘水’자의 경우 ‘물슈/스이/미즈’, ‘人’의 경우 ‘사루인/신/히도’로 되어 있는 식이다. 이 사전을 보고 있으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우리 옛 한글의 발음과 표기법도 배우게 된다. 여러 음가를 지닌 반치음(ㄹ)의 발음이 여기서는 [ㄹ]이라는 발음을 표기하는 데 사용되었고, 이는 ‘水[みず, 미즈]’를 ‘미즈’라고 표기하는 것보다 일본어 발음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상하권 각 책의 권말에는 ‘弘化年調之’, ‘橋邊本’이라는 묵서(墨書)가 쓰여있고, 상권의 뒤표지에도 ‘橋邊藏’이라는 동일한 필체의 묵서가 보인다. 홍화(弘化)는 일본의 연호로 1844년에서

《왜어유해》가 지닌  
자료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6년 말 본서는  
귀중본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서고에 보관되어 있다.

1848년까지를 나타내므로, 이 자료는 18세기 말 간행 후 19세기 중반 무렵 ‘하시베(橋邊)’라는 일본인이 소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자료원부>에 의하면 도서관에서 《왜어유해》를 1946년 9월 15일 송 모 씨라는 개인으로부터 3,500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온다. 당시 다른 고서들의 구입가가 20원에서 100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구입 당시에도 이 자료의 가치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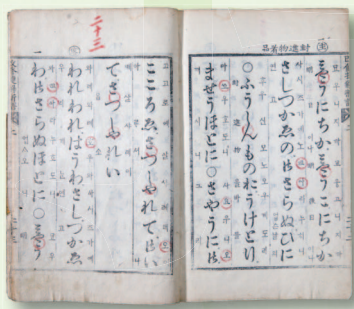
현재 원본 완질본으로는 일본 고마자와(駒澤) 대학 소장본을 제외하면 도서관 소장본이 유일하다. 《왜어유해》가 지닌 자료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6년 말 본서는 귀중본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서고에 보관되어 있다.

#### 사전의 가치, 고서의 가치

이 자료가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며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고문헌이라는 대상은 여전히 어렵고 구태의연한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없는지 고문헌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필자가 20년 전 일본에서 공부할 때는 고지엔[広辞苑]이라는 일본의 국어사전으로 일본어 단어를 찾아 익히곤 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통역·번역까지 모두 가능해 두꺼운 사전을 직접 펼쳐보는 일은 흔치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현재 초등학교인 필자의 아이가 학교에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는 법을 배운다고 했다. 시간은 걸리지만 모르는 단어를 한 장 한 장 넘겨 찾는 일을 꽤 재미있어 하길래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 접속해 원문보기 서비스를 통해 이 낯선 고서를 한 번 보여주었다. ‘나는 한국인입니다. 밥 주세요.’ 정도의 일본어를 알고 있던 아이가 《왜어유해》에 수록된 水[미즈], 歳[사이], 子[무스고], 母[하하], 終日[시우시즈], 人[히도] 등의 단어를 몇 개 찾아보더니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본어 문장을 곧잘 만들어 필자에게 알려주었다. ‘물 주세요. 나는 열 살입니다. 나는 아들이고 당신은 엄마입니다. 엄마는 종일 사람입니다(?)’ 현재의 발음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든 조선시대 일본어 사전이 지금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활용될 수 있음을 느꼈던 순간이었다. 📖

04



- 03 한자 아래 한자의 훈음과 독음, 순수 일본어 발음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다
- 04 임진왜란 이후 일본어 수험서로 활용된 《첩해신어》

#### 참고문헌

정광, 배성우, 김유정, 《倭語類解研究》, 臨川書店, 2016  
정광, 《조선시대 외국어교육》, 김영사, 2014





도시란을 만나다

꾸음 이루는 도서관

# 경상북도교육청 청도도서관

함께 나눌수록  
더욱 커지는  
배움의 기쁨

## 인생을 바꾸는 평생학습을 만나다 ‘경상북도교육청 청도도서관’

글 김채은 사진 정인수, 경상북도교육청 청도도서관

### 지역주민에게 먼저, 더 가까이 다가서는 도서관

지역주민들을 지식과 정보, 문화의 세계로 초대하는 청도도서관. 1984년 개관해 지난 2020년 신축,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과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4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존서고부터 자료실, 전시실, 자율학습실, 휴게실, 무한상상실 등 다양한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청도도서관은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 ‘청도북스타트 책날개’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마련된 프로젝트다. 청도 지역 11개 초등학교의 신입생에게 북스타트 그림책, 가이드북 등으로 구성된 ‘책날개 꾸러미’ 전달식을 진행한다. 북스타트 그림책 작가의 초청 특강, 도서 전시회 등을 연계해 추진한다. 또한 청도도서관

모르던 분야를 새롭게 배우고 익히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다. 배움 자체의 기쁨을 깨닫고 소통하자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가 펼쳐졌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참여와 활발한 활동을 통해 얻은 뜻깊은 성과다. 생기로운 일상, 슬기로운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경상북도교육청 청도도서관(이하 청도도서관)을 찾았다.

관은 독서동아리 회원,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가족, 재능나눔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THE 특별한 회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총 10권의 책을 대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과 임산부, 고령 회원에게 무료 택배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청도도서관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지역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들은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결성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수필 쓰기, 시낭송, 독서토론 등 8개의 평생학습동아리가 결성되었으며 심화학습과 토론, 재능기부 등 저마다 열정적으로 지식과 배움의 활동을 전개했다.

청도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먼저 다가서는 도서관, 고정된 공간이 아닌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소통하는 도서관으로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청도도서관 어린이자료실은 산뜻하고 아기자기한 분위기로 지역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 도서관 평생학습동아리에서 탄생한 신춘문에 당선자

2023년 시작과 함께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청도도서관 평생학습동아리 ‘수필반’ 지영미 씨가 전북일보 신춘문에 수필 부문에 당선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지영미 씨는 2017년부터 청도도서관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수필창작 강좌를 수강했다. 약 6년간의 수강, 3번의 도전 끝에 얻어낸 쾌거였다. “처음 전화가 왔을 땐 광고성 전화인가 싶어 받지 않았어요. 다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젊은 여분이 제가 신춘문에 당선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습니다.”

지인의 추천으로 우연히 따라나섰던 수필창작 수업. 지영미 씨는 수필 쓰기의 체계를 배우고 다양한 수필을 읽어 가면서 수필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었다. 수필을 읽고 쓰는 모든 일들은 자신의 지난 세월을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

“제 마음에 해소되지 않은 것들이 그렇게 많았는지 이전에는 몰랐어요. 수필을 쓰면서 알게 됐죠. 당시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사실은 마음에 담아두었구나, 하고요. 수필은 자기 고백을 통한 치유의 문학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치유를 넘어 확장하고 승화시켜 삶의 이치와 연결될 때 수필의 예술성이 높아집니다.”



(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수필반 지영미 회원, 도세정 사서, 서경희 도서관장, 최현숙 사서, 수필반 곽흥렬 교수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수필반 동아리

### 수생수사, 12년간 이어진 열정의 수필반

청도도서관 평생학습동아리 수필반의 성과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간 30~40번의 크고 작은 수상이 있었다. 청도도서관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 최장기간 쉼 없이 운영된 것도 수필반이다. 곽흥렬 교수의 가르침 아래 수필반은 무려 12년 동안 이어졌다.

수필반은 상반기와 하반기, 12주 과정으로 매주 금요일 진행됐다. 30대부터 70대까지, 수필에 대한 열정을 지닌 수강생들이 모였다. 곽흥렬 교수의 수업을 듣기 위해 밀양, 대구 등 인근 지역에서 찾아오는 수강생도 있었다. 곽흥렬 교수가 직접 준비한 교재를 토대로 수업이 진행됐다. 이론 수업과 작품 감상, 수강생들의 작품 발표로 구성된 2시간은 금세 지나갔다.

“수업이 끝난 뒤 교수님과 수강생들은 곧바로 자리를 옮겨 식당에서, 카페에서 못 다한 이야기를 이어나가곤 했어요. 함께 토론을 나누며 문학에 대한 공감과 열정을 나누었죠. 수생수사, 그야말로 ‘수필에 살고 수필에 죽는’ 이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년간 수필반을 이끌어 온 곽흥렬 교수는 아쉽게도 지난해 말 은퇴를 발표했지만, 수필반 회원들의 교수를 향한 감사와 응원의 인사, 문학으로 나눈 우정의 연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 지역에 생기를 더하고 배움의 기쁨을 전하다

청도도서관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및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시행, 결과 분석을 통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인 만큼 교육청의 시책을 프로그램에 적절히 담아내고, 청도군이 지닌 인구·문화 등의 특징과 사회 흐름을 고려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청도도서관은 3월에도 다채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과 만난다. 과학에 대한 흥미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 속 과학 원리를 창의적인 과학 실험으로 연계하는 ‘도전! 나도 과학자’, 인공지능 로봇과 자율주행 로봇 등 다양한 로봇을 만들어보는 ‘도전! 코딩 로봇’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수필반, 중국어, 시낭송, 금융수업, 부모가 먼저 배우는 4차 산업 콘텐츠 등 2023년도 상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생기를 더하고 배움의 기쁨을 선사하는 청도도서관의 2023년을 기대해본다. 📖



청도도서관은 2020년 신축을 통해 더욱 편리한 시설, 쾌적한 공간으로 지역주민을 맞이하고 있다



청도도서관  
평생학습동아리  
수필반

지영미 씨

“수필반을 통해 수필 쓰기를 배우며 좋은 선생님과 동료들을 만나게 되었고, 신춘문에 당선이라는 기쁨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깊이 있게 배우는 일은 인생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일군 성과를 더욱 좋은 작품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LIBRARY INFORMATION

#### 경상북도교육청 청도도서관

- 🕒 이용 어린이자료실, 무한상상실, 종합자료실  
화~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 주말(오전 9시~오후 5시)  
자율학습실 화~일요일(오전 9시~오후 10시)
- 📅 휴관 매주 월요일 / 관공서의 공휴일
-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 124
- ☎ 054-370-7600







## 디지털 시대 새로운 도서관의 탄생 ‘샤르자 지혜의 집’

글, 사진 조금주

### 지식과 문화에 대한 미래형 관문

연방 입헌군주국인 아랍에미리트는 아라비아 반도 동부에 위치하며 7개의 아랍도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샤르자는 학습과 문화의 중심지로, 아부다비와 두바이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후국이다. 2019년 4월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책의 수도(WBC)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여 샤르자는 최첨단 공공도서관의 건립 계획을 세웠다.

지혜의 집은 지식과 문화에 대한 미래형 관문을 표방하며, 미래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기 위한 도서관의 기본 역할을 재창조하려는 대담한 야망으로 설계되었다. 혁신과 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 미래를 수용하면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배우고, 교환할 수 있는 배움의 커뮤니티 허브를 디자인 콘셉트로 삼았다. 지혜의 집이란 명칭은 희귀도서관을 보존하던 이라크 바그다드의 ‘Khizanat al-Hikma(지혜의 집)’에서 영감을 얻었다.

바그다드 지혜의 집은 AD 830년에 칼리프(Caliph, 왕) 하룬 알 라시드(Harun al-Rashid)가 설립했으며, 아바스 왕조 공립 아카데미 및 지식센터, 또는 아바스 왕조에 속한 대규모 개인 도서관을 가리킨다. 9세기부터 13세기까지 바그다드에 기반을 둔 학자, 작가, 번역가, 과학자, 필사자들이 매일 번역과 글쓰기, 읽기 및 대화를 위해 이곳에 모였다. 과학적 개념과 철학적 주제의 수많은 책과 문서가 이곳에서 아랍어로 번역되었고, 세계의 위대한 지식 수집품들이 축적되었다. 지혜의

디지털의 발달로 세상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변해간다. 지식과 지혜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도서관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 책에 정보를 저장하는 것에서 CD, USB,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로 이동했다. 구글(Google)에서는 검색 한 번으로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얻을 수 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연결만 있으면 된다. 그렇다면 수 세기에 걸쳐 지식을 보유하고 정보를 제공하던 도서관의 역할은 디지털의 발달과 함께 어떻게 진화했을까. 2020년 12월에 문을 연 아랍에미리트(UAE, United Arab Emirates) 샤르자(Sharjha) 지혜의 집(House of Wisdom, *بيت الحكمة*(아랍어), Bayt al-Hikmah(로마자))을 통해 소개한다.



02

집은 세계에서 가장 큰 책 보관소가 되었고, 이러한 노력들은 아랍 세계의 ‘황금기’를 이루어냈다. 지혜의 집과 그 장서는 1258년 바그다드 공성전(攻城戰, 성을 비롯한 방어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적을 공격하는 것)이 벌어지는 동안 훌라구 칸(Hulagu Khan, 1256~1265)의 군대에 의해 파괴되었다.

- 01 지혜의 집 건물 정면의 두루마리 기념비(The Scroll Monument)로 영국의 조각가 게리 유다 작품이다
- 02 1층 자료실 모습. 앞에 보이는 것이 책을 놓으면 저절로 반납처리되는 스마트 서가이다



### 물리적 책의 저장소에서 피지털의 경험 공간으로

샤르자 지혜의 집의 주요 기능은 책을 보관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약 30만 5,000권의 책을 소장하는데, 이중 3분의 2는 디지털 형식이고, 1만 1,000권은 다양한 언어의 종이책이다. 지혜의 집은 종이책을 저장하고 제공하는 문화기관이라는 한계를 넘어 디지털 서비스를 더해 무단절의 총체적인 ‘피지털(Phygital)’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다. 피지털은 피지컬(Physical)과 디지털(Digital)로 만들어진 합성어로, 디지털을 활용해 오프라인 공간에서 경험을 확대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도서관이 갖는 물리적 공간과 사물들을 디지털 인터페이스 및 솔루션과 통합한 것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차용하여 업그레이드된 공간과 서비스의 변화를 보여준다. 피지털 경험을 위해, 지혜의 집은 이용자들이 지식, 문학, 학습 및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관내의 시설과 서비스에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미래형 공간을 구현하고자 했다. 인터랙티브 키오스크(Interactive Kiosk)에서 QR코드 스캔을 통해 도서 검색, 예약, 주문 요청, 도서대출 및 반납, 세미나실 예약 등의 도서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도서관 웹사이트, 모바일 웹,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등 지혜의 집의 모든 터치 포인트는 사람 중심의 디자인 원칙을 적용하여 이용자의 니즈를 충족하도록 설계되었고,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여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도서관의 모든 콘텐츠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최신 시청각 장비를 갖춘 회의실은 회의와 다양한 행사에 사용할 수 있다. 제작 공간인 알 자자리(AI Jazari) 패브리케이션 랩(Fabrication Lab)은 아랍의 천재 과학자인 이스마엘 알 자자리(Ismail al-Jazari, 1136~1206)의 이름을 따라 명명되었는데,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기를 갖추고 있다. 창의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것을 구축하려는 사람에게 전문 장비와 전문가의 도움이 제공된다. 에스프레소 북머신(Espresso Book Machine)은 주문형으로 책을 인쇄하고 제본하는 기계이다. 대개 5분 이내에 제본 책이 완성되는데, 에스프레소를 만드는데 걸리는 속도만큼 빠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지만,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약 600만 권의 원본 콘텐츠를 인쇄하고 자체 출판할 수 있다.

### 이용자를 배려한 설계, 지혜를 얻는 공간

지혜의 집은 도심에서 10km 떨어진 샤르자 공항에 인접하며, 새로운 문화 지구의 중심에 위치한다. 1만 2,000m² 대지면적에 상징적 2층 건물로, ‘떠 있는’ 거대한 캔틸레버(Cantilever) 지붕을 특징으로 한다. 캔틸레버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의 보를 의미한다. 건물의 각 모서리 근처에 배치된 4개의 콘크리트 코어가 지붕을 받치고 있는 형태이다. 사방으로 15m가량 돌출된 넓은 지붕은 건물 안으로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것을 막아주며, 건물 전면 유리에 드리워진 알루미늄 스크린은 석양빛을 걸러내어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게 한다. 또한 건물 내부의 이동식 대나무 스크린은 이용자들이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강렬한 사막의 태양빛을 차단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심한 설계이다.

넓은 로비로 들어서면 지혜의 광장(Wisdom Square)이라 불리는 중앙의 안뜰이 한눈에 들어온다. 탁 트인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이 가득하다. 각종 식물과 다 자란 나무가 무성한 덕분에 푸르른 지혜의 광장에서 고요함과 평안함을 만끽할 수 있다. 야외 정원에는 다양한 종류의 무화과, 야자수 등의 나무가 있다. 특히 인상적인 조형물이 시선을 사로잡는데, 이는 ‘두루마리 기념비(The Scroll Monument)’로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듯한 36m 높이의 고리 모양을 지니고 있다. 이 기념비는 사막의 모래폭풍으로 인한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레이저 커팅 압면 강판으로 만든 것으로, 고대 아랍의 문서인 두루마리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영국의 조각가 게리 유다(Gerry Judah)가 디자인했다.

뿐만 아니라 샤르자 지혜의 집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5,000권 이상의 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린이 교육공간도 마련돼 있다. 어린 독자(The Little Reader) 코너에서는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며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성을 북돋아준다. 아이들이 혼자 책을 볼 때 보호자는 커피숍에 앉아서 책을 읽는 아이를 지켜볼 수 있다. 편히 눕거나 모여서 책을 읽거나 모임을 할 수 있는 여성전용 공간(Ladies Diwan)도 있다.

이처럼 샤르자 지혜의 집(House of Wisdom)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집, 그 이상이다. 책을 보관하고 열람하는 장소로서의 도서관이 아니라 지혜를 얻는 공간으로 지혜의 집이라 명칭한 이유이다. 📖

03 1층 어린이자료실 스토리텔링 공간

04 지혜의 광장(Wisdom Square)이라 불리는 중앙의 안뜰

### 【조금주】

도서관 건립 컨설팅, 도서관 운영자문, 사서 교육 등 도서관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는 <넥스트 라이브러리(Next Library)>의 대표. 틈날 때마다 세계 각국의 도서관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 뒤 훌쩍 배낭을 짊어지고 그곳들을 찾아다니며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의 도서관을 꿈꾸고 있다. 《내 마음을 설레게 한 세상의 도서관들》(2020) 등을 집필했다.

**샤르자 지혜의 집**

📍 8G94+9C8 - Al Juraina 1 - Sharjah - United Arab Emirates

🕒 일~목요일 오전 7시~오후 11시  
금~토요일 오전 7시~오후 12시

☎ +971 6-594-0000

**알 이티하드 공원**

아랍에미리트 샤르자에 위치해 있으며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휴식하게 좋은 공원

📍 Al Ittihad Monument - S105 - Al Soor - Sharjah - United Arab Emirates

🕒 평일 및 주말 24시간 이용 가능

**샤르자 이슬람 문명 박물관**

이슬람의 역사와 문화를 관람할 수 있는 박물관

📍 Al Sharq - Al Nabba - Sharjah - United Arab Emirates

🕒 매일 오전 10시~오후 6시 (금요일 휴관)

☎ +971 6-565-5455

28

29



## 또 다른 세상속의 새로운 도서관 ‘메타버스 도서관’

글 정은주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단어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1992년 닐 타운 스티븐슨(Neal Town Stephenson)의 《스노 크래시》라는 소설에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지만, 실제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일반인들에게 친숙해진 시기는 2020년 무렵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비대면 접촉이 일상화되기 시작한 시점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20년부터 도서관들은 비대면 서비스의 일환으로 ‘메타버스 도서관’을 고려하기 시작했고, 제페토(ZEPETO), 줌(ZEP), 게더타운(Gather.Town) 등의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메타버스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메타버스 도서관의 운영 사례 두 곳을 살펴보고, 앞으로 메타버스 세상 속의 도서관이 어떻게 진화하고 성장해나갈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의  
메타버스 도서관 전경



메타버스 도서관 어린이자료실 전경



메타버스 도서 북큐레이션 게시물

### 제페토 속의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메타버스 도서관은 제페토 플랫폼을 활용, 실제 도서관의 모습을 최대한 구현하는 방식으로 2021년 12월 26일 개관했다.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1관과 2관, 이 3개 자료실을 실제와 유사하게 가상 자료실로 조성하여 자료실별 소장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게임존(책 속 미로찾기 등)을 만들어 방문자들이 도서관 곳곳을 살펴보고 도서관을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방문자들은 도서관 내외 전체 공간을 둘러볼 수 있고 도서관 사서와 함께 견학도 할 수 있다.

도서관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메타버스 도서관 맵도 제공한다. 메타버스 도서관 맵은 실제 도서관 평면도를 바탕으로 건물 외관부터 북큐레이션, 체험 요소 등 관련 콘텐츠까지 4명의 사서들이 애정을 갖고 직접 구축했다. 현재 2명의 사서가 북큐레이션(추천도서) 관리, 도서관 행사 홍보 콘텐츠 제공,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메타버스 도서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2023년 2월 9일 기준으로 메타버스 도서관 누적 방문인원은 3,304명이다.

처음에는 MZ세대 이용자들의 유입 및 소통,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도서관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메타버스 도서관을 개관하였으나, 실제로는 MZ세대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학부모, 정보화교육을 수강하는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자가 메타버스 도서관을 방문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를 통한 도서관 간접 체험 및 독서와 접목된 다양한 정보 제공 서비스, 각종 도서관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 ZEP에 구현된 경상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

경상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 메타버스 도서관은 2022년 12월 1일, ZEP 플랫폼을 활용하여 개관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구미도서관의 시청각실, 어린이자료실, 독도체험관, 디지털자료실, 동아리실, 미래꿈희망창작소, 강의실, 열람실 등의 다양한 공간을 메타버스 도서관으로 구축하였으며 공간마다 실제 모습을 360°로 촬영한 VR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1층 출입구 입구에는 도서관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공지사항을 바로 확인하고, 설문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방명록을 통해 이용자와 직접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메뉴도 마련되어 있다.

구미도서관 메타버스 도서관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책 읽는 금리단길’ 사업을 메타버스로 구현해놓은 것이다. 이 사업은 구미도서관 주변의 작은 카페들과 협력해 북카페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메타버스 도서관 내 북카페 공간에 입장하면 서로 다른 테마별 도서를 비치하고 있는 8개의 작은 카페를 만날 수 있으며, 카페별 별도의 전시공간도



구미도서관 메타버스 도서관 전경

METaverse LIBRARY





구미도서관 VR 소개 영상



구미도서관 메타버스 도서관 방명록 게시물



메타버스로 구현된 책 읽는 금리단길 북카페

구경할 수 있다. 메타버스 도서관이 도서관 공간에 대한 소개 및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홍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간접 체험의 공간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온 미래 도서관

몇 년 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Ready Player One, 2018)>을 재밌게 본 기억이 있다. 이 영화는 가까운 미래에 '오아시스'라는 가상현실 세계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오아시스에는 세상 모든 종류의 책을 소장한 가상도서관이 있고, 이용자들은 본인의 아바타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동안의 가상도서관(Virtual Library)이 단순히 멀티미디어 정보를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

(Electronic library)이었다면 최근에는 영화 속 미래 도서관처럼 아바타를 통해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최근 메타버스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현재 국내에 구축된 대부분의 메타버스 도서관은 공간에 대한 간접적인 체험을 제공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이미 게시되어 있는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동일하게 전달하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메타버스 도서관이 이용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 정보 제공의 역할에서 벗어나 메타버스 도서관에 최적화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메타버스 도서관 자료실에서 가상 서가를 통해 원하는 책을 검색한 후 대출신청을 하면 집에서 가까운 지하철역에 위치한 스마트도서관에서 직접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메타버스 도서관 내에서 독서토론 모임과 같은 소규모 동아리 모임을 자유롭게 결성하고 또 그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과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면 어떨까. 어쩌면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또 다른 세상 속의 새로운 도서관과 만나게 될 것이다. 가상세계에서도 책으로 만나고 책 읽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일상을 꿈꿔본다. 📖

#### |정은주|

(사)안산공동체미디어 방송국장이자 인권지원단체 '지구인의 정류장'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여전히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지구별 이웃들을 만나고 있으며 이용자의 역사가 담긴 책이 모여드는 곳, '지구인의 도서관'을 기획 중이다. 저서로는 《즐거운 다문화 도서관》이 있다.

## 공감을 펼치다



#### 34 북데이터

신학기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  
초등학생 및 청소년 대출현황  
분석결과

#### 36 오늘의 만남

경이롭고 아름다운  
과학의 세계  
과학 커뮤니케이터 퀘드

#### 44 고전 드라마

스토리보다 재미있는  
'설정의 독특함'  
프란츠 카프카 《변신》

#### 40 K-인문학

'약한영웅', 우정과 연대라는  
영웅 서사의 한 조각

#### 48 오감독서

딸기처럼 작고 귀여운  
행복에 대하여  
다나베 세이코 《딸기를 으깨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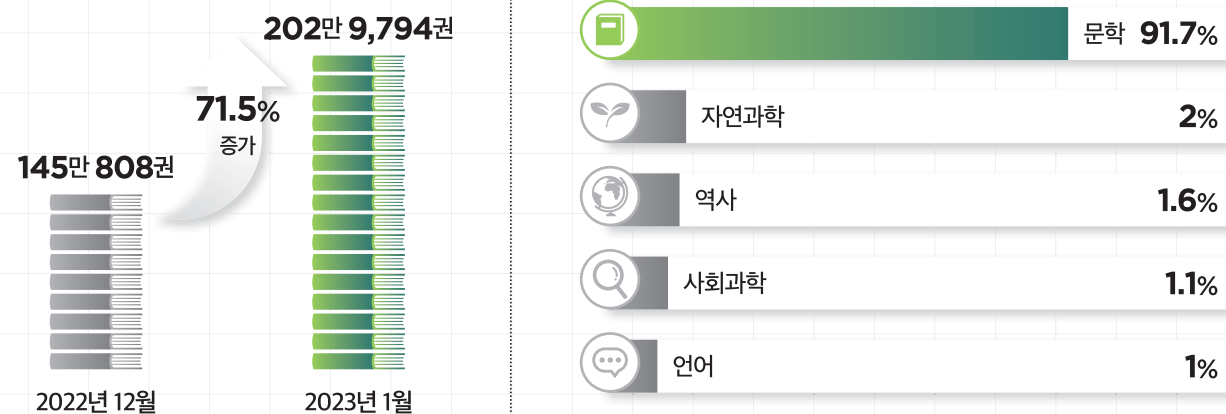


# 신학기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

초등학생 및 청소년 대출현황 분석결과

초등학생  
8~13세

초등학생 도서대출 수 및 장르별 대출 비율



흔한남매 시리즈  
흔한남매 원작 | 유난희 그림 | 미래엔 | 2020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시리즈  
히로시마 레이코 지음 | 김정화 옮김 | 길벗스쿨 | 2022

3위 고양이 해결사 감냥 시리즈  
홍민정 지음 | 김재희 그림 | 창비 | 2022

4위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시리즈  
설민석, 스토리박스 지음 | 정현희 그림 | 강석화 감수 | 단꿈아이 | 2022

5위 위풍당당 여우 꼬리 시리즈  
손원평 지음 | 만물상 그림 | 창비 |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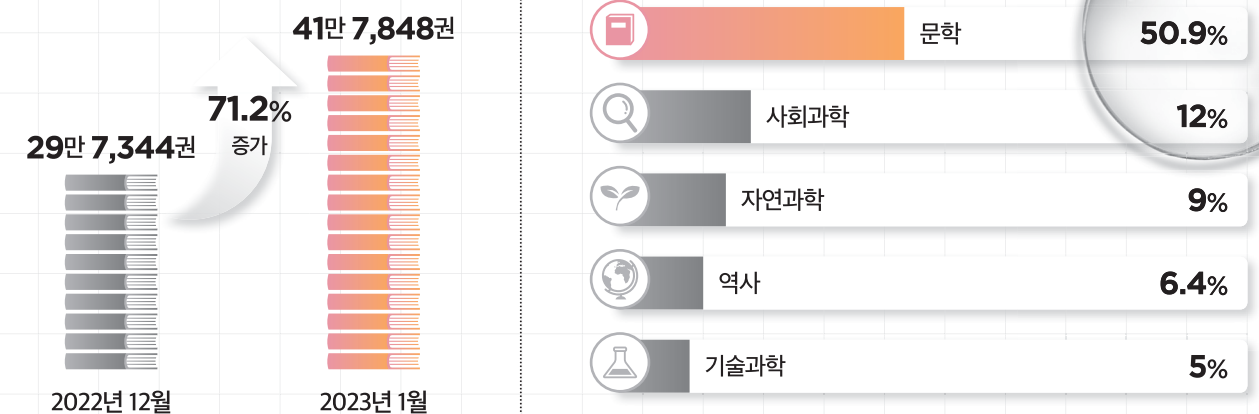
방학이 시작되자 초등학생들의 독서량이 증가했다. 2023년 1월의 경우 전달 대비 약 71.5%의 증가율을 보였다. 주제별 대출동향을 살펴보면 문학이 약 91.7%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초등학생 인기대출도서 분석 결과 《흔한남매》 시리즈가 큰 인기를 끌었다. 유머러스한 만화를 통해 이야기와 지식을 자연스럽게 녹여냄으로써 초등학생들에게 독서의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문장을 따라갈수록 반짝이는 시선. 책장을 넘기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며 책 속 세상을 느긋하게 거닐다 보면 즐거움과 뿌듯함이 따뜻하게 채워진다. 겨울방학을 지나 신학기를 기다리는 동안 학생들은 어떤 책을 가장 흥미롭게 읽었을까. 대한민국 초등학생 및 청소년의 대출현황 분석결과를 함께 알아본다.

자료출처 도서관 정보나루(data4library.kr) 분석기간 2022. 12. 01.~2023. 01. 31.

청소년  
14~19세

청소년 도서대출 수 및 장르별 대출 비율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이치조 미사키 지음 | 권영주 옮김 | 모모 | 2021



달러구트 꿈 백화점  
이미에 지음 | 팩토리나인 | 2020

3위 어느 날, 내 죽음에 네가 들어왔다  
세이카 료겐 지음 | 김윤경 옮김 | 모모 | 2022

4위 지구 끝의 온실  
김초엽 지음 | 자이언트박스 | 2021

5위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김초엽 지음 | 허블 | 2019

청소년들의 문학 사랑이 이어지고 있다. 문학 분야는 인기대출도서의 약 50.9%를 차지했으며, 인기대출도서 1위부터 20위까지 국내외의 소설들로 채워졌다. 문학 외 사회과학(12%), 자연과학(9%), 역사(6.4%) 분야가 뒤를 이었다. 청소년들은 주인공이 청소년인 소설과 SF 소설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현실과 가상 세계를 자유로이 유영하는 독서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 | 케 도 |

과학 커뮤니케이터이자 과학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의 진행자. 연세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천문우주학을 공부했다. 현재 다양한 방송 및 온라인 플랫폼에서 과학 전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케도의 과학 허세》, 《과학이 필요한 시간》을 썼다.

## 경이롭고 아름다운 과학의 세계

### 과학 커뮤니케이터 케도

진행 신수빈 사진 정인수, 케도

## 01

오늘의 도서관 독자들에게 간단한 소개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될과학>이라는 과학 유튜브 채널에서 활동하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케도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천문우주학과 인공위성 궤도를 공부했고, <KBS 뉴스특보>에서 대한민국 발사체 누리호 1차 발사와 2차 발사 생중계 해설을 맡았습니다. 다양한 과학 관련 교양 및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이말년 작가님의 유튜브 채널 <침착맨>에서 침투부어워즈 대상 및 3관왕을 수상했습니다.

## 02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길을 선택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어릴 적부터 세상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찾기 위해서 과학자가 되기로 결심했고, 그 길을 걷다 보니 저보다 훨씬 정답에 가까운 답을 찾아낼 수 있을 만한 두뇌와 재능을 갖춘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답을 찾아낼 수 없다면,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자고 다짐했습니다. 만약 집을 짓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도, 저보다 훌륭한 건축가가 있다면 그분이 전체적인 설계를 하는 게 맞아요. 대신 그렇게 지어질 집이 제가 꿈꾸는 집이라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거죠. 심지어 그 집을 짓는 과정에서 모래를 나르거나 시멘트를 바를 수 있다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없죠. 건축가는 많이 필요 없지만, 집을 짓기

열정을 다해 과학을 탐구하고 대중에게 ‘과학’이라는 아름다운 집을 소개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케도. 지난해 그는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인공지능부터 양자역학까지 과학의 26가지 핵심 주제를 엄선한 과학 안내서를 펴냈다. 낯설고 어려운 과학 지식을 친근하게 들려주기 위해 노력했다. 과학에 의해, 과학을 위해 흐르는 케도의 시간을 따라 가본다.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재능이 부족한 저도 과학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대중에게 그 아름다운 집을 소개하고, 짓는 과정에서 찾아낸 모두의 노력과 열정을 알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게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하는 일이지.

## 03

유튜브 과학 채널 <안될과학>에서 주로 물리학과 천문학 등의 분야를 다뤄주고 계신데요. 본인이 생각하는 천문우주학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천문우주학은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탄소나 질소, 산소처럼 무거운 입자들은 우리가 사는 태양계 근처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런 입자들은 아주 높은 온도와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질 텐데, 우리 근처에서 유일하게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건 태양뿐이에요. 하지만 태양은 기껏해야 헬륨처럼 가벼운 원소밖에 만들지 못하죠. 즉, 우리를 구성하는 입자 대부분은 이곳이 아니라 우주의 아주 먼 곳으로부터 왔습니다. 엄청난 시공간을 지나 여기 도착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머나먼 우주의 어딘가를 그리워해요. 바로 그곳이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천문우주학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돌아갈지에 대한 과학적인 대답을 하려고 노력하는 학문이에요. 그 과정은 엄청나게 경이롭고 흥미진진하죠.





매주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 '안될과학 랩미팅'에 참여한 궤도

## 04

‘궤도’라는 예명부터 과학에 대한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궤도’라는 예명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대중의 관심은 과학기술과 과학자들에게 향해야 합니다. 만약 저에게만 관심이 쏟아진다면 제가 소비되는 순간, 아마 더 이상 대중은 과학에 흥미를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 과학기술 그 자체에 더 관심을 두게 하려고 과학의 한 분야를 활동명으로 삼았어요. 생소한 전공 분야를 하나 알게 되는 거죠. 같은 꿈을 꾸고 활동하고 있는 우리는 과학과 대중을 연결하는 플랫폼일 뿐이며, 저보다는 과학자와 과학기술에 대한 이야기에 대중이 더욱 관심을 갖길 소망합니다.

## 05

과학 지식을 설명하실 때, 예시나 비유를 들어 쉽고 친근하게 말씀해주시는데요. 발상을 전환하는 본인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가요?

항상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해요. 새로운 과학 이론이나 성과가 나오면, 이것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하고, 과연 친숙한 비유나 예시인지를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드라마나 예능을 잘 보지 못하지만, 늘 텍스트로 공부하고 있으며, 대

중에게 이슈가 되는 문화적 사건들도 끊임없이 접하며 항상 과학과 연관 지을 만한 부분을 찾아요. 사실 대중들이 전문가 수준으로 과학 내용을 이해하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과학 이론이나 용어 자체가 친숙하다면, 그걸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저는 아주 가벼운 예시와 왜곡된 비유로 대중이 과학적 키워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사람이며, 정말 좋은 콘텐츠와 진짜 과학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끝없이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 부족한 역량을 봤을 때, 거기까지가 제 역할이며 그 역할을 하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 06

일상에서 가족 또는 친구들과도 과학 이야기를 자주 나누시나요? 주변 분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일상에서는 최대한 과학 이야기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분명히 좋아했을 가족이나 친구들도 어쩌면 충분히 과학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 과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다른 영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저는 과학을 정말 좋아하는 과학 애호가다 보니, 여러 매체에서 과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지금껏 과학 이야기를 쉬지 않고 해왔고,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말할 수 있는 채널도 충분히 늘어났으니까요. 그렇지 않았으면 주변 분들이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 07

여전히 과학은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과학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안될과학>을 보는 것이죠. 약학박사이신 약님, 공학박사이신 공진님, 천문학박사이신 항성님,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온 힘을 모아 말씀하신 대중들이 과학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과학과 친숙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과학 관련된 웃이나 텀블러 등 굿즈를 만들기도 하고, 그 외에도 해본 적 없는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플랫폼이 바뀌고, 활동 무대가 바뀌더라도, 앞으로도 이러한 목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거라고 믿어요.

## 08

신간 《과학이 필요한 시간》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과학이 필요한 시간》은 이전 책인 《궤도의 과학 허세》에서 부족했던 부분, 다루지 못했던 내용을 이야기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사실 글쓰기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공들여 책을 쓰는 이유는 대중을 대상으로 책만이 할 수 있는 과학 소통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궤도의 과학 허세》는 일단 읽히는 책을 목표로 썼고, 청소년 등 젊은 세대가 공감하는 맘을 글로 옮겨 과학과 연결 지으려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주석이나 용어를 계속 찾아보면서 읽는 책이 아니라, 그냥 에세이처럼 쉽게 읽히는 과학책은 없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과도한 농담, 가벼운 접근 방식 등이 성인이나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바라는 독자분들께는 아쉬움을 남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번 책은 과학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일상생활 혹은 평소에 고민하던 문제, 삶에 대한 고민 등을 연결시켜 나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을 쓰려고 노력한 책이에요. 다양한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을 위로하는 순간을 목격하다 보면, 온 세상에 과학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썼습니다.

## 09

이번 책을 쓰시면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셨나요? 기억에 남는 독자들과의 반응, 독자 후기도 궁금합니다.

과학에 관심이 많은 독자분들이 읽을 좋은 과학 대중서는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과학에 대해 아직 관심이 크지 않거나, 책으로 과학을 접하는 것이 어색한 분들에게 이 책이 좋은 입문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썼습니다. 독자분들 중 꽤 많은 분들이 실제로 태어나서 처음 사본 과학책이라는 후기를 많이 공유해주셨어요. 또 과학에 관심은 있지만, 책을 읽으려고 하면 도통 알아듣지 못해 결국 포기했던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책이라는 반응을 듣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 10

즐거 찾는 도서관 혹은 애정하는 도서관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 이유도 함께 들려주세요.

저는 마포중앙도서관을 자주 갑니다. 꽤 넓기도 하고, 편하게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집에서 가깝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예요. 사실 제가 기본 많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의 저서 《궤도의 과학 허세》, 《과학이 필요한 시간》

도서관들은 대부분 좋은 시설과 책, 그리고 편안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갖고 있었어요. 이제 도서관이 대중들을 위한 멋진 문화시설로 확실히 자리를 잡은 느낌입니다. 앞으로도 관심이 있는 주제와 무관한 책을 무심하게 꺼내서 편안하게 읽기 위해 도서관을 자주 찾을 것 같아요.

## 11

마지막으로 <오늘의 도서관>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서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에 이렇게 제가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찾아서 읽는 분들은 이미 책에 대한 애정이 정말 크신 분들일 것 같네요. 혹시 과학책이 조금 멀게 느껴졌던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아무 책이나 꺼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과거 영국의 마이클 패러데이가 어린 시절 제본소에서 일할 때, 누군가 맡기고 찾아가지 않은 과학책을 읽다가 위대한 실험물리학자가 된 것처럼, 독자분들도 충분히 세상의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더 넓은 세상과 새로운 진로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의  
인터뷰 영상은 국립중앙도서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악한영웅’, 우정과 연대라는 영웅 서사의 한 조각

글 문화평론가 정덕현 사진 재담미디어, 네이버 웹툰

영웅은 시대가 탄생시킨다. 무수한 역사적 영웅들의 이야기들은 그래서 먼저 그들이 깨치고 나가야 할 시대적 소명을 제시한다. 위화도 회군을 통해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시대적 소명은 대내외적으로 혼란했던 고려 말을 평정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고, 임진왜란에 왜군들과 싸웠던 이순신의 소명은 전쟁에서 이겨 나라를 지키는 것이었다. 또 한글을 만들어 백성들이 쓰고 읽을 수 있게 했던 세종대왕의 소명은 당대 글을 몰라 핍박받던 민초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이었다. 실제 인물이 아닌 작품 속 인물들 역시 마찬가지다. 홍길동 같은 영웅은 임진왜란으로 피폐해진 민생을 돌보지 않는 탐관오리들을 척결하고픈 민초들의 욕망이 투영되어 탄생했고, 《삼국지》 속 유비, 관우, 장비 같은 실제 역사적 인물을 극화한 영웅들은 후한 말 황건적의 난과 십상시의 난이 벌어지며 대혼돈이 펼쳐진 난세에 이를 평정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 속에서 탄생했다. 그리고 이러한 영웅 서사는 지금껏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당대가 요구하는 소명이 존재하는 한.

### { 웹툰의 학원 액션물, 드라마를 통해 현실의 웃을 입다 }

웹툰 원작을 드라마화한 <악한영웅 Class 1>(이하 악한영웅)의 소재는 최근 대중적 관심을 끌고 있는 ‘학교 폭력’이다. 이미 학교 폭력의 현실은 유하 감독의 <말죽거리 잔혹사(2004)>가 시대적 배경으로 가져왔던 1970년대부터 지금껏 계속 이어져 온 것이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1992)>, <친구(2001)>를 비롯해 <말죽거리 잔혹사(2004)>까지, 영화들은 시대의 폭력과 학교 폭력을 동일한 선상에서 다루곤 했다. 하지만 지상파 시대의 TV들은 청소년을 첫사랑이나 학업 관련 갈등 같은 비교적 밝은 지대에 두고 싶어 했다. 그러던 것이 최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같은 선택적 시청을 하게 된 새로운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그간 다뤄지지 않았던 청소년들의 어두운 면들을 다룬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인간수업>은 청소년 성매매를 소재로 다뤘고, 시즌 <소년비행>은 청소년들의 마약 실태를 그렸다. 그리고 그간 웹툰이나 웹소설에서는 ‘학원 액션물’이라는 장르로 불릴 정도로 쏟아져 나왔던 학교 폭력 소재 콘텐츠들이 OTT 드라마의 주요 리메이크 소재가 되었다. <악한영웅>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공부벌레라면 오히려 학교 폭력의 대상이 되기 마련인 현실을 떠올려 보면, 약해 보이지만 정반대의 면면을 보이는 연시은은 반전의 카타르시스를 주는 영웅이 된다.

### { <악한영웅>에 담긴 시대적 소명 }

<악한영웅>은 오로지 공부만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는 ‘공부벌레’에 어딘지 연약해 보이는 연시은(박지훈)이 어쩌다 학교 폭력과 마주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거대한 폭력과 싸워 나가는 영웅 서사를 그리고 있다. 폭력이 일상이 된 학교 교실 안에서도 자신만 건드리지 않으면 무관심하게 지나치던 연시은은, 패치형 마약까지 슬쩍 붙여 시험을 망치게 만든 영빈(김수겸) 패거리들에게 무참한 보복을 가한다. 그런데 이 연시은이라는 인물이 싸우는 방식이 독특하다. 그것은 공부벌레답게 ‘물리법칙’이나 ‘파블로프의 개’ 같은 심리학을 이용해 저들을 효과적으로 타격하거나 공포에 질리게 하는 방식이다. 공부벌레라면 오히려 학교 폭력의 대상이 되기 마련인 현실을 떠올려 보면, 약해 보이지만 정반대의 면면을 보이는 연시은은 반전의 카타르시스를 주는 영웅이 된다. 즉 이 인물이 마주하고 있는 시대적 소명은 학교 폭력이라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안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약자들 혹은 피해자들을 대신해 가해자들의 세상에 주먹을 날리는 일이다. 학교 폭력이 가진 사안의 심각성은 그것이 다른 아닌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아이러니에 있다. 약자들을 도와주며 더불어 살아가는 걸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약자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폭력을 방치하고 심지어 권력을 쥔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가르치는 아이러니가 그것이다.





〈약한영웅 Class 1〉 드라마 주인공들. 왼쪽부터 오범석(홍경), 안수호(최현욱), 연시은(박지훈)

### 영웅이 탄생되기까지의 과정과 단계

학교 폭력이라는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시대적 소명과 이를 대변해주는 연시은이라는 영웅의 탄생. 〈약한영웅〉은 구체적인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전형적인 영웅 서사의 패턴 또한 공유하고 있다.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는 책을 통해 신화의 서사구조를 분석한 조지프 캠벨(Joseph Campbell, 1904~1987)이 말하듯 영웅 서사에는 동서고금을 통틀어 일정한 서사의 패턴이 존재한다. 조지프 캠벨은 그 구조가 ‘출발 → 입문 → 회귀’로 이어지며 그 각 단계를 ‘영웅의 여정 12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다. 즉 출발에는 각각 일상의 세계, 모험에의 소명, 소명의 거부, 스승과의 만남, 관문 통과와 5단계가 들어가고, 입문에는 ‘시험, 협력자, 적’, 동굴 가장 깊은 곳으로 접근, 시련, 보상의 4단계가 있으며, 회귀에는 귀로, 부활, 보물을 가지고 귀환이 있다고 했다. 이 단계는 물론 모든 영웅 서사를 가진 작품들이 똑같이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정한 흐름은 우리에게 대대손손 내재되어 내려온 스토리텔링의 원질로서 유사하게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 단계는 물론 모든 영웅 서사를 가진 작품들이 똑같이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정한 흐름은 우리에게 대대손손 내재되어 내려온 스토리텔링의 원질로서 유사하게 반복된다는 것이다.



#### 원작

네이버 웹툰 〈약한영웅〉  
서페이스 글 | 김진석 그림 |  
재담복스 | 2020

### 어른 없는 세상, 우정과 연대라는 영웅 서사

이러한 서사 구조를 통해 들여다보면 〈약한영웅〉도 그 패턴을 보여준다. 연시은이라는 영웅은 일상에서 학교 폭력을 일삼는 자들과 맞서며 모험에의 소명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한 관문을 넘지만, 더 큰 폭력 조직이라는 또 다른 적들을 만나 안수호(최현욱)와 오범석(홍경), 영이(이연) 같은 협력자와 함께 대적해나간다. 그리고 그 협력이 깨지면서 또 다른 위기를 맞고 결국 파국에 이르는 영웅 서사의 흐름이다. 그런데 이 패턴 안에서도 〈약한영웅〉이 특히 주목하는 건 ‘시험, 협력자, 적’ 단계로 그려지는 ‘우정과 연대’의 이야기다. 연시은과 안수호 그리고 오범석이 보여주는 우정과 연대가 중요한 건, 이들을 진정으로 보호해주고 챙겨주는 어른들이 부재하다는 사실 때문이다. 연시은의 부모는 있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아이를 방치하고, 오범석의 국회의원 아버지는 자신의 이미지 세탁을 위해 아이를 입양해 이용해 먹기만 한다. 안수호는 아예 자신을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없고 대신 부양해야 할 할머니만 존재한다. 그러니 이들이 기댈 곳은 자신들뿐이다. 끈끈한 우정과 연대가 이들의 작은 숨통처럼

느껴지고 그것조차 깨져나갈 때 이 영웅 서사의 비극이 더 울림을 주는 건 그래서다. 〈약한영웅〉이라는 비극적인 영웅 서사가 문제의식으로 가져온 건 ‘어른 없는 세상’이다. 가해자가 힘(돈과 권력)만 있다면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힘없는 피해자가 계속 고통받는 그런 엇나간 현실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사회에 무슨 미래가 있을까. 그래서 이 어른 없는 세상에서 약하지만 애써 나서는 싸우는 아이가 보여주는 비극은 우리 시대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짚어내고 있다. ㉠



#### [ 정덕현 ]

대중문화평론가이자 칼럼니스트 각종 방송 활동, 강연 등을 통해 대중문화가 가진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있고, 백상예술대상, 대한민국 예술상 심사위원이다. 저서로 《드라마 속 대사 한 마디가 가슴을 후벼팠 때가 있다》, 《다큐처럼 일하고 예능처럼 신나게》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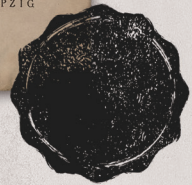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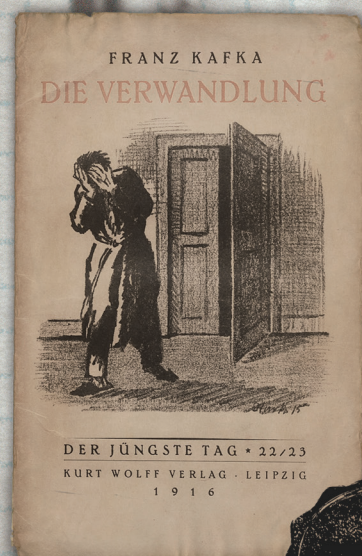
네이버 웹툰 〈약한영웅〉 86화의 한 장면,  
쓰러진 연시은을 들어안은 박후민



## 스토리보다 재미있는 ‘설정의 독특함’

프란츠 카프카 《변신》

글 김규범 사진 위키피디아



Die Verwandl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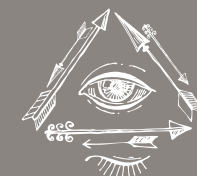
‘삼식’이라는 은어를 아시나요? 주로 중년층에서 사용하는 은어로 ‘집에서 아내가 차려주는 세끼(삼식)를 먹는 남편’을 의미합니다. 평생 돈 벌어 오느라 고생하다가 은퇴 후 휴식을 맞이한 이들에게는 마냥 농담으로만 들리지 않을 표현입니다. 특히나 ‘코로나19’가 몰고 온 휴직, 퇴직으로 한창 일할 나이에 ‘갑자기 삼식이 된 이들’이 증가한 요즘에는 더욱 날카롭게 받아 들여질 표현이기도 합니다. ‘독어권의 대문호’라고 불리는 작가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 1883~1924)’의 1915년 소설 《변신》은 현실에 대한 고민과 미래에 대한 걱정을 동시에 안겨주는 ‘경제활동 능력 상실’이라는 비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멀쩡하던 직장인이 하루 아침에 벌레로 변했다’라는 독특한 설정을 통해 말이죠.

대리님~ 과장님~ 부장님~ ... 삼식아!?

### #1



불안한 꿈을 꾸고 깨어난 아침이었어요.  
이불 속에 누워있는 제가  
어딘가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졌죠.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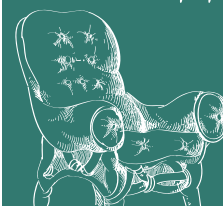
딱딱한 등과 불룩한 갈색 배,  
가느다란 여러개의 다리. 이게 다 뭐죠?  
저는 커다란 벌레가 되어있었어요!



### #3



꿈일 거야, 당연히 꿈이겠조...  
하지만 천천히 둘러본 공간은  
진짜 제 방인 겁니다!  
창 밖에는 우중충하게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 #4



자명종 시계는 여섯시 반.  
이제 출근 준비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가족들이 저를 부르는데,  
벌레가 된 저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아요.  
이 모든 게 꿈이 아니라면,  
저는 이제 어쩌면 좋죠?





## 가족은 가족입니다만

- 인물관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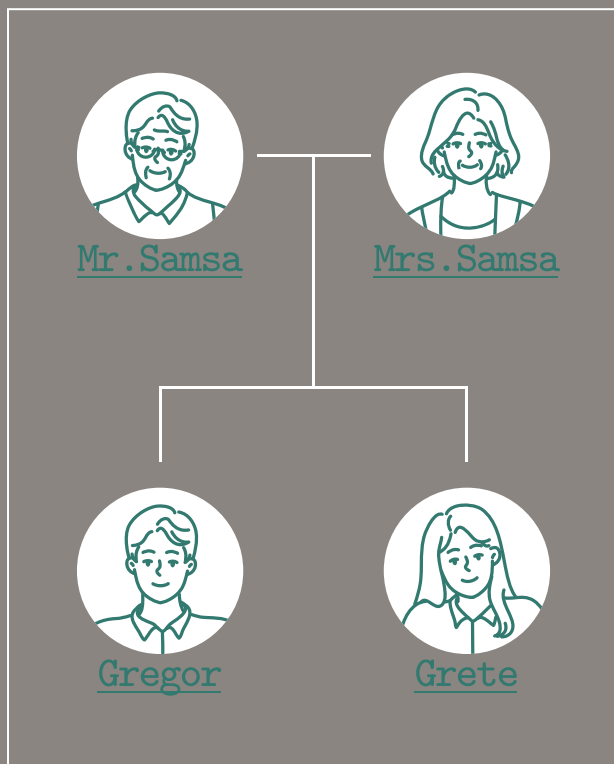
### 아버지

5년 전 사업 실패 후  
무기력함에 빠져 지내고  
있다.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를 보고 부인이  
기절하자, 그레고르에게  
사과를 던져 상처를 입힌다.  
이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나선다.

### 주인공

### 그레고르

작은 회사의 외판사원으로  
일하고 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그는 어느 날 아침 벌레로  
변해버린 자신을 발견한다.



### 어머니

폐병에 걸려 힘든 일은 하지  
못한다. 집안일조차 어려워  
매달 돈을 주고 가정부를  
고용하고 있다. 그레고르의  
변신에 충격과 공포를  
느끼지만 한편으로 걱정하고  
안쓰러워하기도 한다.

### 그레테

그레고르가 가장 아끼는  
가족. 바이올린에 재능이  
있다. 그레고르가 변신한  
뒤로 그를 돌보는 역할을  
맡지만, 둘 사이는 곧  
멀어지게 된다.

### 작품읽기 준비 운동 왜 하필 직장인일까?

소설 《변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활동 능력을 상실한 직장인과 그의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 '인간 존재의 불안함'을 환기하는 작품입니다. 작품을 읽기 전에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직장인'이라는 설정이 등장했는지 알아보면 작품에 접근하기 쉽습니다. 작가 프란츠 카프카는 실제로 직장생활과 창작활동을 병행했던 인물입니다. 낮에는 '노동자 상해보험 공사'에서 회계사로 일했고, 밤에는 글을 썼습니다. 《변신》은 업무상 많은 노동자와 접촉할 기회를 가졌던 작가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던 당시 유럽 노동자들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입니다.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와 자본주의 사회의 어두운 면에 대한 통찰을 담아 집필했기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직장인'이라는 설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 줄거리 알아보기. 갑작스러운 실직, 그리고…?

주인공의 이름은 '그레고르 잠자'. 의류회사의 출장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남성입니다. 성실하고 모범적인 직장인이죠. 부모님이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진 상태이고, 여동생도 이렇다 할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레고르가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자 유일한 수입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깬 그레고르는 자신이 거대한 벌레로 변했음을 알게 됩니다. 당장 출근해야 하는데 문밖에 나가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 그저 꾸물꾸물 바닥을 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사이 출근 시간이 지나버렸고, 직장 지배인이 그의 사정을 확인하러 집에 찾아옵니다. 그레고르는 방문이 열리지 않도록 걸어 잠근 채 지배인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지배인이 언성을 높이며 그레고르를

불렀고, 그는 “곧 나가겠습니다. 시간을 주세요!”라고 답했습니다만 벌레로 변해버린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췌췌”하는 울음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잠시 후 그레고르가 방문을 열고 거실에 모습을 드러내자, 가족들은 커다란 벌레를 보고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레고르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레고르는 방 안에서 단순하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부모님은 그의 방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의 여동생만이 방문을 열어 먹이를 주고 간단한 청소를 해주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방에 있는 벌레가 그레고르라는 확신조차 없습니다. 그저 짐작할 뿐입니다.

방문 밖에서는 가족들의 대화 소리가 들립니다. 가족들은 그레고르가 모아둔 비상금이 있으니 한동안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돈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돈이라는 것도 다들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더 흐르자 여동생마저 불만을 표하기 시작합니다. 먹이를 주는 횟수도, 방을 치워주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더니만, 방 안에 있는 가구를 모두 치워버리겠다고까지 하는데요. 그레고르는 당장 몸을 숨길 가구마저 치워버리면 안 된다는 자신의 뜻을 전해보고자 액자에 달라붙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본 어머니는 기절해버렸고 아버지는 그레고르에게 사과를 마구 집어 던졌습니다. 그때 날아온 사과로 인해 큰 부상을 입게 된 그레고르는 정상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었죠.

그사이 집안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벌레다 주는 돈만으로 살던 가족들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가사도우미도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하숙인까지 들어가며 돈 벌기에 집중했는데요. 그레고르의 부상은 무관심 속에서



프란츠 카프카(1883~1924)

## Franz Kafka

더욱 악화되어만 갑니다. 오직 방을 들여다보는 사람이라고는 그를 진짜 벌레로 취급하는 가사도우미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여동생의 바이올린 소리가 들립니다. 그레고르는 바이올린 소리에 홀린 듯 거실에 모습을 드러냈고 그 모습을 본 하숙인들이 기겁하며 당장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과 그레고르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레고르는 방 안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벌레 시체는 가사도우미가 빗자루로 이미 치워버립니다. 막힌 것이 뚫리더라도 한 듯, 가벼운 마음으로 소풍을 떠난 가족들이 새로운 희망을 품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초현실(또는 현실)'

《변신》은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한다는 초현실적인 소재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현실을 벗어난, 현실을 초월한 것을 '초현실'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주인공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절대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작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활동 능력을 상실한 직장인의 모습에 대한 은유를 담은 작품입니다. 그렇기에 주인공이 벌레로 변한 상황은 '다닌던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한 상황'이나 '사고로 몸을 다쳐 움직이지 못하게 된 상황' 등으로 치환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았음에도 발생한 뜻밖의 상황 때문에 나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일은 우리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바로 '무력감'입니다. 내가 왜 벌레가 되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 게다가 그것이 외부요인 때문이라면 더욱 갑갑합니다. 또한 작품 속 가족들의 모습을 무조건 비난할 수만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 안타깝습니다. 남은 가족들도 어찌 되었든 살아야 하니까요. 이렇듯 《변신》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간 존재의 불안함'을 초현실적인 소재를 활용해 전달함으로써 인간과 삶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작품입니다. ❷

### [ 김규범 ]

독서라는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아서 책을 읽고 책을 소개하고 감상을 나누는 공간인 유튜브 채널 <사월이네 북리뷰>를 운영하고 있다. 직장인을 위한 고전 안내서 《고전의 고전》을 집필했다.



# 딸기처럼 작고 귀여운 행복에 대하여

다나베 세이코 《딸기를 으깨며》

글 김승희



두터운 외투를 입고서 길을 걷다가도 따뜻한 봄의 기운을 마주할 때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 시간을 견디면 계절이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 그리고 제철의 향긋한 딸기를 나누어 먹는 봄날의 다정한 일상 같은 것들. 새로운 계절, 다시 새것 같은 시간 앞에서 하루하루 새콤달콤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소설 속 주인공을 만나본다.



## 딸기를 으깨며

다나베 세이코 지음 | 김경인 옮김 |  
북스토리 | 2012



### 때로 삶은 이토록 달콤하고

알맹이가 통통한 딸기를 손가락으로 푹푹 으갠 뒤 우유를 듬뿍 부어 마신다. 오래된 옷을 꺼내 취향껏 리폼해 입는다. 옛 친구들과 만나 술 한 잔 마시기도 하고, 틈틈이 작은 음식점을 찾아다니기도 한다. 집안 곳곳은 메모지로 가득하다. 그리고 3년 만에 일러스트레이터로 복귀했다. 하루하루를 불어오는 바람처럼 느끼는, 서른다섯 노리코의 삶이다.

딸기를 으깨면서, 나는 생각에 잠겨 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혼자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극치가 아닐까? (중략)

정말이지 요즘 들어 혼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온몸으로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오늘 아침처럼 창백한 여름 하늘에 창 너머로

오사카성 공원의 녹음이 보이면, 이 경관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기쁨에 눈앞이 다 캄캄해질 지경이다.

옛날에는 슬플 때나 언짢을 때 눈앞이 캄캄해졌는데,

요즘에는 기쁠 때 숨이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진다.

그 크나큰 차이는 옛날에 슬퍼서

눈앞이 캄캄해질 때는 그 어둠이 쭉 지속되었지만,

지금은 일순 캄캄해졌다가 다음 순간

그전보다 훨씬 더 환해진다는 것이다.

-《딸기를 으깨며》중에서-



느긋한 아침, 노리코는 하루를 시작하며 딸기를 으갠다. 신선한 딸기 내음이 아침 공기와 섞여 산뜻한 기분을 만들어낸다. 창밖의 초록 풍경을 바라보며 눈앞이 캄캄해질 정도의 행복을 느끼는 노리코. 그녀의 행복이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 한때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재벌 2세와 결혼했지만, 남편에게 사생활을 통제받으며 지냈다. 친구를 만나는 일도, 자신의 취향대로 옷을 입는 일도 그녀에게 쉽게 허락되지 않았다. 부잣집 도련님인 남편의 취향에 모든 것을 맞추던 결혼생활, 그 3년간의 연극을 벗어 던지고 노리코는 새로운 삶을 찾기로 한다.

이후 노리코는 자신의 힘으로 일상을 촘촘히 일궈 나간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생활비도 번다. 3년의 공백을 되찾는 동안 노리코는 자유와 해방감을 만끽한다. 그리고 마침내 자문한다.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전환점이 될 만한 어떤 사건을 지났다 해도 인생이 한순간에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노리코 역시 우연히 전남편을 다시 마주치자 예전 기억이 떠올라 흔들리게 된다. 교통사고로 친구를 잃어 슬픔에 잠기기도 한다. 불현듯 찾아오는 우연과 변화가 일상을 흔들 때, 노리코는 잠시 약해지기도 하지만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인생의 앞을 향해 나아간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의 앞쪽에는 새로운 인간관계가 놓여있었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세상의 행복과 묘미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상 속 작은 행복은 그녀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 이러한 노리코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비단 이혼 후의 자유로움에서 온 것만은 아닐 것이다. 행복은 만드는 만큼 자신의 것. 자신에게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선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리코는 아침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으깬 딸기를 우유와 함께 마시는 동안 신문을 읽고, 원하는 스타일로 공간을 꾸리고, 목욕물을 미지근하게 받아 그 안에서 책을 읽는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기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인 것이다. 가끔은 혼자가 외롭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어쩔 수 없다. 자신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잔기술들을 하나씩 발견하는 일상, 사소한 기쁨을 포착하는 취향을 통해 일상의 행복을 차곡차곡 쌓아간다. 그리하여 노리코는 고백한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은 인생이다.’ 라고 말이다. 🍓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은 인생이다.

정말 인생이다. 그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인생은 여러 가지 일에 도움이 된다.

특히 살아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다시 태어나있다.

단 하루도 같은 날이 없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나는 살아 있지 않을 것이고,

기계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나의 하루하루는 나를 향해 불어오는 바람 같은 것이다.

- 《딸기를 으깨며》중에서 -


recipe

**소설 속 노리코처럼,  
새콤달콤한 하루를 여는  
봄날의 레시피 ‘딸기라떼’**

바야흐로 딸기의 계절입니다. 여유로운 주말 아침, 노리코처럼 딸기를 으깨며 봄날의 작은 행복을 만끽해보세요. 제철 과일로 만드는 간편한 식사, 부드럽고 달콤한 딸기라떼를 함께 만들어봅시다.

**재료** 딸기(200g, 2인분 기준), 설탕, 플레인 요거트, 우유

- ① 딸기는 꼭지를 제거한 깨끗이 씻어 준비하기
- ② 물기를 털어낸 뒤 손가락으로 살살 으깨기
- ③ 설탕 3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기
- ④ 딸기를 그릇에 담은 뒤 플레인 요거트를 넣어 층을 만든 뒤 우유를 살살 부어주면 완성!




# 함께 나누다

오늘의

도서관

52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56 국내의 도서관 소식

58 내 마음의 문장들  
2023년 두 번째 필사  
정호승 <봄길>

59 오늘의 사진관  
따스한 봄날,  
나만의 도서관을 소개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 NEWS

## 01 전국도서관 직원 대상 2023년도 사서교육훈련 계획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은 전국도서관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2023년도 사서교육훈련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사서들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지식·기술 교육을 위해 ① 교육훈련 방식의 혁신, ② 전문교육 강화, ③ 공유·개방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을 3대 목표로 정하고 직무전문 교육 총 98개 과정 154회를 운영한다.

### ① 교육훈련 방식의 혁신

급속한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교육과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 일몰제’<sup>1)</sup>와 정형화된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일과 학습을 연계한 ‘일터학습조직’<sup>2)</sup>을 사서교육에 도입하는 사서학습공동체를 운영한다. 예측 불가능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대면/비대면 전환 교육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결합형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② 전문교육 강화

올해 2월부터 시작되는 사서교육 과정은 디지털 역량, 세대별 특성 이해 등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도서관 직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으로 확대·개설하고, 직무역량과 경력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구분하여 제공하는 등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한다.

- 1) 교육과정 일몰제: 교육과정을 일정 기간 운영한 후 계속 운영 여부를 검토
- 2) 일터학습조직: 학습자 중심의 비정형 교육방식으로 공통의 과제/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조직으로 ‘직무연구회’ 등이 대표적

특히, 도서관과 디지털리터러시·도서관과 데이터리터러시 등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교육을 신설하고, 이용자 생애주기별 도서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서비스 등 9개 신규과정을 개설한다.

### ③ 공유·개방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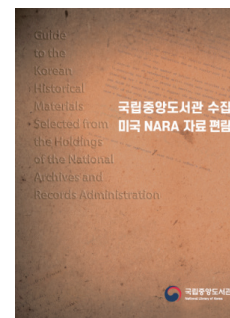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사서교육훈련 발전 협의체도 구성한다. 국내의 도서관 유관기관들과 함께 대학·학교·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관중에 따른 도서관의 역할과 미래 도서관의 방향을 모색하고 관중별 맞춤형 교육과정도 함께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사서한마당은 지난해 다양한 사례발굴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던 영상콘텐츠 공모전을 확대하고, 개최지역의 대표 도서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을 대표하는 교육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2023년도 사서교육과정은 지난해 수립한 사서교육훈련 중장기발전계획의 2023년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전국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유일의 사서직 전문교육기관으로 매년 100여 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교육과정 안내와 신청은 사서교육누리집(edu.n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도서관인재개발과 02-590-0553



## 02 국립중앙도서관, 해방 이후 해외 역사자료 수집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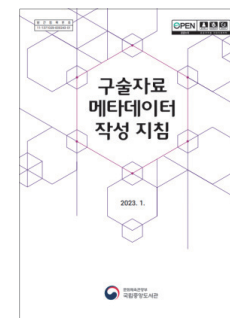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소장 한국 관련 자료 조사·수집 사업 사업’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 자료 총 313만여 면을 디지털화하여 수집하였고,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하고 있다. 올해는 미국 국방부 육군 문서인

Record Group 338 문서(미국 육군 작전·전술·지원 조직 기록)와 Record Group 407 문서(부관참모실 기록) 등 15만 면을 수집할 계획이다. 또한 2004년부터 수집한 NARA 자료 전체를 분석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수집 미국 NARA 자료 편람》(이하, NARA 편람)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50개 문서군별 시리즈에 대한 상세 목록과 해제를 제공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안내서 역할을 할 것이다. 《NARA 편람》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 내 ‘도서관 소개’-‘발간자료’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워싱턴 현지에서 고품질의 디지털 이미지 파일로 수집하는 이 문서들은 목록 및 원문 DB를 구축하여 NARA의 공개 사용 저작권 정책(원출처만 밝히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에 따라 도서관 누리집(www.nl.go.kr)에 공개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조영주 자료관리부장은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존하는 기관으로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에 소재한 한국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내외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발간한 《NARA 편람》은 한국 근현대사 연구자 및 국민들에게 역사연구를 위한 중요한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온라인자료과 02-590-0736

## 03 복잡한 구술자료 정리를 위한 첫 실무지침서 제작



국립중앙도서관은 2023년 2월 디지털 구술자료의 효과적인 수집·정리를 위해 《구술자료 메타데이터 작성 지침》(이하 지침)을 제작하여 유관기관 대상 배포 및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구술자료는 한 사람의 생애사적 경험의 구술을 기록한 것으로 최근 지역사회 및 공동

체의 의미있는 경험과 기억을 기록한 민간 기록이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구술자료의 효과적인 정리를 위해 도서관 및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풍부한 예제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주요 내용은 구술자료의 메타데이터 요소 설계, 기술 원칙 ▲구술자료 매체형식 및 산출물, ▲저작권 동의서 등 필수 서식, ▲부록으로 메타데이터 작성 예시 등을 수록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구술자료의 생산 주체가 상이하고 생산기관별로 관리하고 있어 소장 파악이나 관리 상태를 알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구술자료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해 2019년 <구술자료 수집 타당성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추진 로드맵을 정립하였고, 2021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참여형 기록사업인 ‘디지털생활사아카이빙’ 구술자료(713명 12,351건)를 수집하는 등 국내 구술자료 수집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향후 구술자료를 국가자원화하여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침을 계속 보완해 갈 예정이며,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을 통해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PDF)을 제공하고 있다.

📞 온라인자료과 02-3483-8884



## 국립중앙도서관 NEWS

### 04 학술지 저작권 정보 손쉽게 확인하세요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학술지 저작권 안내 시스템(Korea Journal Copyright Information, 이하 KJCI)'을 새롭게 개편하였다. 이번에 개편된 KJCI 시스템(copyright.oak.go.kr)에는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하여 기기

에 상관없이 화면 구성을 최적화하였고, 이용자 친화적인 UI로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KJCI는 국민 누구나 학술지 발행기관에 일일이 문의하지 않아도 해당 학술지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원문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논문을 재사용할 수 있는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술지의 저작권 정보를 분석하여 등록 및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KJCI에서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후보) 학술지 2,751종을 비롯한 2,889종의 국내 학술지 저작권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이용자들은 보다 명확하게 학술지 저작권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학술 정보의 활용, 공유,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디지털정보기획과 02-590-6225



### 05 2023년 국립중앙도서관 미디어 활용 및 창작 교육 연간 일정 안내

2023년 ‘국립중앙도서관 미디어 활용 및 창작 교육’이 3월부터 운영된다. 교육과정은 크게 「디지털정보활용교육」과 「1인 미디어 아카데미」 과정으로 나뉘어, 총 36개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첫 강좌로는 크리에이터 입문 과정(1기)이 3월에 진행되며, 교육 신청은 희망하는 개별 과정별로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 > 신청참여 > 교육/문화프로그램 > 미디어 활용 및 창작 교육에서 각각 할 수 있다.

☎ 지식정보서비스과 02-3483-8847



### 06 로봇으로 업무 처리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

국립중앙도서관은 업무 처리 자동화(Robotics Process Automation, 이하 RPA) 시스템을 본격 운영하며 도서관 업무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RPA는 사람이 직접 수행하던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하는 기술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디지털 전환을 이끌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도서관은 지난해 단순·반복·대량으로 처리되는 업무에 대한 RPA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국가 지식 정보 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미납본 자료 수집을 위한 목록 조사, ▲전자책 미납본 자료 조사 및 통계 작성, ▲온라인 수집자료 메타데이터 형식 변환, ▲웹자원 메타데이터 형식 변환, ▲소장자료 원문보기 서비스 점검 업무에 우선 도입하였다.

도서관에서 수집한 웹자원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자료관리 시스템에 맞는 형식으로 변환하는 작업의 경우, 1회당 8시간가량 소요되던 시간이 3분으로 단축되었다. 또한 인력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원문 서비스의 오류 여부를 RPA로 매월 5,000건씩 자동 점검할 수 있게 되면서 도서관 자료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디지털 자원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응하고 도서관 이용자에게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관은 국민 누구나 지식 정보 자원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3년에도 RPA 과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디지털정보기획과 02-3456-6110

<RPA 추진 과제별 적용 효과>

업무명	RPA 도입 전			RPA 도입 후		
	수행주기	수행건수	소요시간 (회당)	수행주기	수행건수	소요시간 (회당)
전자책 미납본 자료 조사 및 통계 작성	일 1회	약 300건	480분 (8시간)	일 1회	약 300건	120분 (2시간)
온라인 수집자료 메타데이터 형식 변환	월 2~3회	1건	600분 (10시간)	월 2~3회	1건	10분
미납본 자료 수집을 위한 목록 조사	월 2회	1,000건	300분 (5시간)	월 2회	1,000건	40분
소장자료 원문보기 서비스 점검	-	-	-	월 1회	5,000건	5,000분 (건당 1분, 84시간)
웹자원 메타데이터 형식 변환	월 2~3회	1건	480분 (8시간)	월 2~3회	1건	3분

<RPA 기대효과>

#### 만족도

##### Job Satisfaction

단순·대량 업무를 줄여 직원 만족도 향상

#### 효율성

##### Work efficiency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로 효율성 제고

고부가가치 업무 개발 환경 조성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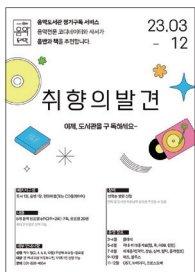
## 국내 도서관

# NEWS

### 01 발달장애인 특화도서관 조성

서울 성동구는 올해 발달장애인 특화도서관 조성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한 33개 사업에 총 330억 예산을 투입한다고 2월 9일 밝혔다. 먼저 돌봄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발달장애인 특화도서관을 조성한다. 3월 초 개관 예정인 도서관은 장애 특성상 소리를 내거나 과격한 행동이 뒤따르는 발달장애인이거나 경계선 지능을 가진 ‘느린 학습자’도 편히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된다. 2월부터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성동구 장애인들 대상으로 이용 중 사고발생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 보험가입도 지원하고 있다.

### 03 이정부음악도서관, '취향의 발견' 3월부터 운영



‘취향의 발견’은 책이나 음반을 고를 때, 본인만의 취향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사서와 음악전문 코디네이터가 선정한 자료를 장르별 패키지로 추천받는 정기구독 서비스다. 3~12월까지 5개 음악 장르를 격월로 운영하며, 선착순 방문으로 구독 신청을 받는다. 구독자들은 디지털 매체에서 느낄 수 없었던 CD와 LP만의 아날로그 감성을 깊이 있게 경험하며, 음악과 어울리는 책도 함께 읽어볼 수 있다. 별도의 청음기기 없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CD플레이어와 턴테이블이 패키지로 제공된다.

### 02 스터디카페, 메타버스, 영상·전자콘텐츠 한 데 모은 도서관 3월 개관

서울 마포구는 호텔나루 1층(마포구 도화동)에 ‘마포나루 메타버스 도서관’을 조성 중이다. 해당 명칭은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다. 규모는 835.7㎡로 1,400여 권 장서의 자료실과 150여 석의 열람실은 물론, 미디어기기를 활용한 메타버스 도서관 서비스 및 영상·전자도서관 서비스가 가능한 공간으로 꾸며진다. 무엇보다 도서관으로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는 스터디카페형 학습공간으로 활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도서관 운영이 종료되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평일은 물론 주말도 운영해 주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 04 데이비드 랭크스 교수, 한국 혁신 도서관 탐방

2022년 10월, 국립중앙도서관 창립 77주년 기념 콘퍼런스에서 ‘한국 도서관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펼친 미국 텍사스대학교 R. 데이비드 랭크스(R. David Lankes) 교수는 한국 지역 도서관을 방문하고 난 소감을 퍼블리셔 위클리(publishersweekly)에 기고하였다. 그는 한국 지역사회 공동체가 만든 도서관이야말로, 진정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혁신 도서관이라며 한국의 지역 도서관들을 방문해보라고 권했다. 랭크스 교수의 칼럼 ‘Exploring the Innovative Community Libraries of Korea(2023. 1. 12.)’ 전문은 퍼블리셔 위클리 누리집(www.publishersweekl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랭크스 교수의 칼럼 전문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세요.



## 국외 도서관

# NEWS

### 01 뉴질랜드국립도서관, 재해 자료 복구 지침 공개

지난 1월, 뉴질랜드 최대 도시 오클랜드 등 북섬 북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주민 2명이 숨지고 건물들이 물에 잠기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엄청난 홍수로 도서관도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를 위해 뉴질랜드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NLNZ)이 ‘재해 복구 지침’을 발표했다. ‘재해 복구 지침’은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Alexander Turnbull Library)’ 국립 보존소(National Preservation Office) 현장 관리 위원인 비키 앤 하이켈(Vicki-Anne Heikel)이 장서 관리를 위해 개발한 것이다. 누리집(https://natlib.govt.nz)에서 이용 가능한 ‘재해 복구 지침’은 수해로 손상된 자료(사진, 책, 예술품, 음악 컬렉션 등)를 가장 잘 복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03 미국 산타바바라공공도서관, 야외 탐험 ‘어드벤처 팩’ 대여 시작

산타바바라공공도서관(Santa Barbara Public Library, SBPL)에서 주립 공원 및 해안 공원 등을 탐험하는 데 필요한 물품 꾸러미인 ‘어드벤처 팩’을 자유롭게 대여할 수 있다. 지역주민은 ‘어드벤처 팩’ 대여를 통해 대자연을 탐험할 수 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캘리포니아주립도서관(California State Library)이 관리하는 프로젝트의 일부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도 봄 기간 내내 열릴 예정이다. SBPL 이용증 소지자는 SBPL 목록에서 ‘어드벤처 팩’을 찾아 예약을 걸고, 대여할 준비가 되면 알림을 받을 수 있다. SBPL에 방문해 물품을 확인하고 수령한 후, 3주 동안 대여할 수 있다.

### 02 호주 정부, 디지털 대출권 보상 확대 발표

호주 정부는 전자책과 오디오북에 대한 ‘디지털 대출권’ 보상액을 1,290만 달러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도서관은 오디오북과 전자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 지불의 일부는 일반적으로 출판 계약과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저자에게 돌아간다. 다만 실물 도서와 달리 대출권에 대한 추가 지급은 없다.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이 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부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형식으로 책을 즐기든 창작자와 출판사가 같은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호주도서관정보협회(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과정을 위해 도서관 및 호주 예술청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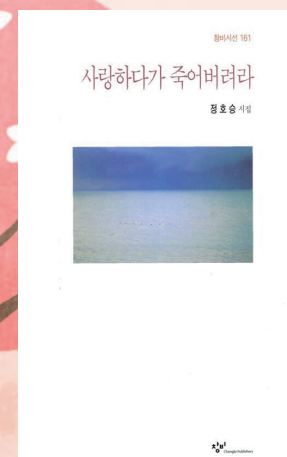
### 04 도서관계와 교육계 직원 기소를 허용하는 음란물 규제, 미성년자 유해 법률 모니터링

미국 전역의 도서관을 위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형성하고자 만들어진 비영리단체 에브리라이브러리(EveryLibrary)가 2023~2024년의 기간 중 음란물 및 미성년자 유해 법률 제정 및 변경 사안을 주 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모니터링하고 있는 법안들은 사서와 교육자, 대학 및 대학 교수를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들이다. 각 주의 협력 단체들은 유권자와 도서관 활동가의 파일에 즉시 접근할 수 있다. 에브리라이브러리는 대외적 홍보 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메시지 전달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독립적인 예산을 지원한다.



## 내 마음의 문장들

더디지만 조금씩 가까이,  
올해도 봄은 어김없이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봄날의 햇살처럼 다정하고 따뜻한  
시 한 편, 천천히 읽고 따라 쓰며  
음미해보세요.  
작가의 마음과 자신의 감성이 포개지는  
작은 기쁨을 함께 누리봅시다.  
2023년 3월 함께 필사해 볼 시는  
정호승 시인의 <봄길>입니다.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정호승 지음 | 창비 | 1997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 정호승 <봄길> 전문 -

## 따스한 봄날, 나만의 도서관을 소개합니다!

독서하기 좋은 봄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야외에 나가  
책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독서로 쌓은 마음의 양식이  
살랑이는 봄바람을 타고  
다가올 거예요.  
오늘 하루 나만의 특별한  
도서관을 소개해주세요.

1+2월호 당첨자 사연을 소개합니다!

01

나의 오늘의 도서관은 ( 편안하고 조용한 카페 )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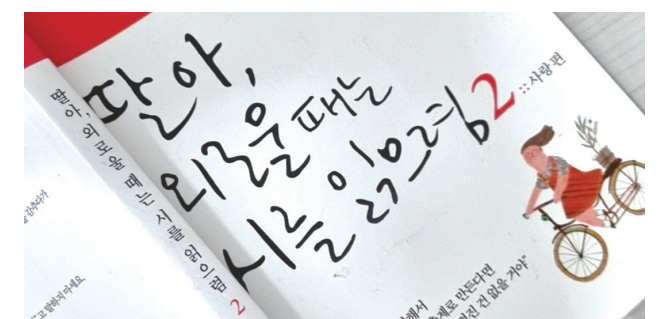


제가 읽고 있는 책은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입니다. 책에 등장하는 진상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럴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카페에서 책을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혹시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주는 진상이 아니었을까?' 이 책을 통해 스스로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게 됐습니다.

오○애 님

02

나의 오늘의 도서관은 ( 공부하는 책상 ) 이다.



책상에 앉아 공부할 때면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책을 읽으며 환기를 시키는 편이에요. 《떨아, 외로울 때는 시를 읽으렴 2 사랑 편》을 읽고 나서 각자가 느끼는 사랑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뜻을 품고 있는 '사랑'이란 단어에 꼭 빠질 수 있었던 하루였네요. 공부하는 중에 몇 자 읽는 휴식을 가지니 행복했어요.

하○현 님

따스한 봄날, 나만의 도서관은  
( ) 이다.

QR코드 링크로 접속해  
내가 오늘 읽은 책과 짧은 감상평을  
사진과 함께 인증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10분께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바로가기

